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기본심리적욕구 및 스포츠피슨십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명 훈

2010년 8월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기본심리적욕구 및 스포츠퍼슨십과의 관계

지도교수 임 상 용

김 명 훈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8월

김명훈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2010년 8월

< 국 문 초 록 >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기본심리적욕구 및 스포츠퍼슨십과의 관계

김 명 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지도교수 임 상 용

운동 상황에서 운동선수들의 도덕적 행동과 발달은 주요 타자에 의해 조성된 개인적 성취, 목표성향과 스포츠 환경 등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구기종목 운동선수 310명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과제성향은 기본심리적욕구의 관계성과 자율성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스포츠퍼슨십 하위요인들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아성향은 기본

심리적욕구의 유능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로 밝혀졌으며, 스포츠퍼슨십 하위요인 중 판정준중과 승부집착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목표성향에 따라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 향상을 위해서는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상황에서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논문은 201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8
3. 용어의 정의	9
II. 이론적 배경	10
1. 성취목표성향	10
2. 기본심리적욕구	20
3. 스포츠퍼슨십	24
4. 선행연구 고찰	32
5. 연구의 가설	36
III. 연구방법	37
1. 연구대상	37
2. 측정도구	38
3. 연구절차	42
4. 자료처리	42

IV. 연구결과	44
1. 성취목표성향,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간의 상관관계	44
2. 성취목표성향,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에 대한 설명력	46
3. 스포츠퍼슨십에 대한 기본심리적욕구의 설명력	48
4. 성취목표성향,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간에 경로모형	50
V. 논의	53
VI. 결론	57
참고문헌	59
<Abstract>	73
<부록 : 설문지>	75

표 차례

<표 1>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의 성취상황에서의 행동, McClelland(1985)	9
<표 2> 동기유형과 과제의 성공, 실패 함수로서 동기의 변화, Weiner(1980)	12
<표 3> 성취목표의 다양한 명칭, 허정훈(2005)	14
<표 4> 도덕발달의 여섯단계, Kohlberg(1969)	25
<표 5>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30
<표 6> 설문지의 구성지표	31
<표 7> 목표성향의 기술통계량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32
<표 8> 기본심리적욕구의 기술통계량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	33
<표 9> 스포츠퍼슨십의 기술통계량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34
<표 10> 성취목표성향,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 간에 상관관계	37
<표 11>.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에 대한 성취목표동기 유형의 설명력 .	39
<표 12>. 스포츠퍼슨십에 대한 기본심리적욕구의 설명력	40
<표 13> 연구모형의 효과계수	42

그림 차례

<그림 1> 심리발생적욕구, Murray(1938)	8
<그림 2> 성취동기와 과목선택간의 관계, Weiner(1980)	11
<그림 3>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센십에 대한 경로모형	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목표는 가장 중요한 역학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목표설정은 선수들의 과제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기와 자기 조절적 기능을 동시에 갖는 자기-동기화의 중요한 원천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과제 수행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가장 많이 연구되고 활용된 동기유발 기법 중의 하나이다(성창훈, 1994).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운동선수들의 성취와 관련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동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수많은 동기 이론 중 성취목표성향이론과 자기결정이론이 최근 연구에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이론은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인지, 정서, 행동결과에 관련된 동기화된 행동을 이해하고 촉진시키는데 적용되고 있다(Vallerand & Losier, 1999).

스포츠 상황에는 다양한 성취목표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유능성(competence)의 현시로 간주되며, 유능성에 대한 지각은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과제(task)와 경쟁(ego) 지향적인 성취목표로 구별된다. 과제성향을 가진 개인들은 자기 자신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고 과제에 대한 숙련과 학습에 초점을 두고, 스스로 얼마나 향상되었는가에 관심을 둔다. 반면 자아성향의 개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

교하여 능력을 보이는데 관심을 둔다. 즉 능력에 대한 지각이 타인 참고적이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된 기준을 사용하여 주관적인 자기 능력을 평가한다(Duda, 1993; Robert, 1992)

사람들은 스포츠와 같은 성취 상황에서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보여주기 를 원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능력은 성공 지각의 기초가 되고 결국에는 성취목표와 관련이 있다(Nicholls, 1992). 과제성향(task goal orientation)의 사람들은 비교의 준거가 자신이고 기술이 향상되었다거나 노력을 많이 했으면 유능성(competence)을 느끼고 성공했다고 판단한다. 과제의 난이도는 자기 자신의 숙련 지각과 이해 능력에 따라 판단한다. 과제에 숙련 될수록 유능성은 높아진다. 숙련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능력 지각은 높아진다(Nicholls, 1984; 문운제, 2005).

과제성향의 사람들은 실패할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동기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성공을 정의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한다(정청희, 김병준, 1999).

또한 과제성향의 사람들에게 자긍심과 성취감은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높아진다. 반대로, 자아성향(ego goal orientation)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능성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한다. 능력감이나 성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자아성향의 사람들은 노력과 능력을 반대로 관련지어 판단한다. 즉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적은 노력으로 성공을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하고 적은 노력으로 성공을 이끌어 내는 것은 능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Nicholls, & Miller, 1984). 특히 지각된 유능성이 낮으면서 자아성향인 사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적은 노력으로 성공하여 자신의 유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쉬운 과제를 택하거나 실패에 직면했을 때 중도에 포기할 수 있고 변명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높은 유능감이 있으면서 자아성향인 사람들은 적응적 성취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Duda, 1992). 이처럼 스포츠 상황에는 두 가지 성향이 존재한다. 이 성향에 따라 개인이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된 행동이 표출된다. 성취목표성향은 개인적인 성향보다 오히려 상황적인 요인들이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유진, 1997).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과제성향은 내재적 동기(Duda, Chi, Newton, Walling & Catley, 1995, 유진, 1997), 스포츠퍼슨십(Duda, 1989), 인지된 유능감(Williams & Gill, 1995), 참여 동기, 몰입(한태준, 배영훈, 박현숙, 2004), 운동포기(안주미, 1997)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자아성향성은 공격성(Carpenter & Yate, 1997), 신체적 자기효능감(정국현, 2003; 정필운, 임식, 2003)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내재적동기와 부적으로(Duda et al., 1995) 또 한편으로 정적으로(Connelly, 1996)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자아 지향적(Duda, 1989; White, Duda, 1994)인 경우와 더 과제 지향적(정국현, 2003; 정필운, 임식, 2003; 정봉혜, 2005)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태준, 2008. 재인용).

한편, Deci와 Ryan(1985)에 의해 제시된 자기결정이론은 인간의 성격발달과 행동의 자기조절에 대한 내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기체적 메타이론이다(김덕진, 양명환, 2006). 이 이론에서는 인간의 정신의 자양분과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되는 세 가지의 욕구, 즉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있다고 가정한다(Reindoth & Duda, 2006).

자기결정이론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동기 유

발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자율성 정도에 따라 내재적 동기에서 부터 무동기까지 동기의 연속체를 따라 변화하는 범주를 제시하였다(양명환, 2004; Deci & Ryan, 1985, Ingledeu, Markland, & Sheppard, 2004, 재인용).

이에 대해 Ntoumanis(2001)는 스포츠에서 성취목표 이론과 자기결정이론의 경험적 관계를 제시한 바 있다.

많은 동기 이론들 중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SDT)은 스포츠 상황에서 동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다양하게 관점에서 동기를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자기결정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동기를 내재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따라 정서, 인지 및 행동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Deci & Ryan, 1985, 2000). Deci와 Ryan(1985, 2000)에 의하면 인간의 동기유형은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그리고 관계성(relatedness)이 포함된 기본심리적욕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러한 세 가지 경험적 특성이 자기결정의 경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경험적 특성에 따라 스포츠 참여에 있어서 개인의 동기수준은 달라지며, 그에 따라 신체활동 참여 정도 및 지속여부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체활동을 참여한 후에 운동시간이 자신에게 즐거웠는지, 또는 운동이 자신의 목표와 성취수준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운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향상 되었는지를 판단하여 향후 운동참여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기본심리적욕구가 자기결정에 의해 평가되어 신체활동 지속과 행복 및 웰빙을 경험하게 해주며, 운동참여의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자기결정이론의 핵심 개념이 자율성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활동과 자신

의 생각이 일치되어 신체활동 참여에 있어서 개인의 의사결정과정 상황에서 의 참여와 의사결정 권리를 존중하고, 내면의 자신을 체계화하여 자발적으로 주어진 활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를 의미하며(DeCharms, 1968; Deci, 1980), 유능성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기본 욕구이다(Harter, 1978; White, 1959), 그리고 (Ryan, 1993; Baumeister & Leary, 1995)는 관계성은 개인이 사랑과 관심의 주체이자, 타인에게 사랑을 배 풀면서 사람 간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의존적으로 보완적인 역할을 영위하는 욕구를 말한다고 하였다.

Vallerand(2001)의 위계적 동기모형에 따르면 욕구의 지지가 심리적 웰빙, 만족 등과 같은 운동과 관련된 동기의 긍정적인 결과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심리적 욕구만족과 동기 및 웰빙 등의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는 운동과 스포츠 영역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면 김덕진, 양명환(2006)은 대학교의 체육수업 상황에서 기본적 욕구, 동기 및 심리적 웰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세 가지의 기본적 욕구는 동기와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확인하였고, 내재적 동기와 확인적 동기와 같은 자기결정동기가 기본적 욕구와 심리적 웰빙간의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욕구 만족의 변화가 동기의 발달과정 뿐만 아니라 심리적 웰빙 변인들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많은 체육 교육자들은 사람들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참여가 자동적으로 성품과 도덕성을 발달시키고, 스포츠퍼슨십을 가르친다고 믿고 있다(성창훈, 김원배, 2000).

스포츠퍼슨십이 명확히 무엇인가를 일반화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그것은 스포츠퍼슨십은 스포츠종목, 선수 수준, 연령,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 연구자들은 성품, 도덕성, 스포츠퍼슨십을 상호 교환하고 있다(박영덕, 2006). Bandura(1977)는 품성, 도덕성, 또는 스포츠퍼슨십과 같은 행동들은 모델링, 강화, 사회적 비교를 통하여 학습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스포츠상황에서 다른 동료의 잘못된 행동이 코치나 지도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관찰한 선수는 자신과 다른 동료와의 비교 작용을 통하여 그 행동을 보이며, 코치의 긍정적인 평가에 의하여 이 행동은 학습된다. 다른 동료의 관찰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그는 강화되어 가는 것이다(박영덕, 2006).

그러나 전통적으로 스포츠 활동에서 행위규범으로 여겨져 왔던 스포츠퍼슨십이 워너십(winnership)으로 변질되어, 스포츠상황이 승리를 통한 부의 상징이동의 수단으로 폄화되고 있다(정의권, 김용주, 최병호, 2004). 스포츠상황이 도덕적 발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직관적인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의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는 매우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즉, 스포츠에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내재되면서 다양한 도덕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서양에서의 새로운 스포츠행위 규범에 대한 제시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해 왔다(최선철, 1996).

고등학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 참가의 목적에 대한 신념간의 관계를 검증한 Duda(1989)의 연구에서 과제성향은 최선, 협동, 규칙준수, 훌륭한 시민정신 등의 스포츠 목적과 긍정적으로 관련된 외적이며 개인적인 성취를 반영한다는 신념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제성향이 우세할 때 성공의 원인이 최선의 연습과 훈련이 결과로 귀인되거나(Biddle 등, 2001), 정직과 공정성 등이 자아성향보다는 과제성향과 더욱 긍정적인 상관을 갖는다는 결과(Duda 등, 1991) 역시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퍼슨십 간의 개연성을 입증하고 있다.

사실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퍼슨십 관계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접근은 고등학교 백인 농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높은 과제성향과 낮은 자아성향은 스포츠퍼슨십 다운 태도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었으며, 상대를 속이거나 스포츠퍼슨십 답지 못한 행동과는 약한 관계를 보였다(Duda 등, 1991). 이 연구는 농구상황을 반영한 스포츠퍼슨십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는 단점이 있지만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퍼슨십 두 변인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Nicholls(1989)는 과제성향의 선수는 기술발달이나 내적 체험에 몰입하기 때문에 타인을 이기기보다는 규칙을 준수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하는 배려와 협동심을 갖고 있는 반면, 자아성향의 선수는 성취활동의 의미를 활동자체에 두기보다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 상황에서 정의나 공정성에 대한 관심부족과 상대의 안녕에 대한 무시 등과 연결될 수 있다. 정봉혜(2005)의 연구에서는 목표성향과 스포츠퍼슨십과의 관계성은 자아성향보다 과제성향이 더욱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과제성향은 스포츠퍼슨십에 정적인 관련이 있다(Duda, 1989). 또한 높은 과제성향은 스포츠 역할(Duda, 1989), 높은 즐거움과 흥미(Hom. Duda, & Miller, 1993), 페어플레이(Lee, Whitehead, Ntoumanis. & Hatzigeorgiadis, 2001).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성공적 대처(Ntoumanis, Biddle, & Haddock, 1999)등에 관련되어 있다(Ntoumanis, 2001). 위 연구들

에서 알 수 있듯이 성취목표성향은 스포츠퍼슨십의 하위변인들과의 관계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과의 관계는 현재 연구가 이루지지 않고 있으며, Vallerand(2001)의 위계적 동기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간의 관계 또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취목표성향이론과 자기결정동기 이론 내 기본심리적욕구와의 관계가 스포츠퍼슨십에 어떻게 영향을 주며, 기본심리적욕구가 성취목표성향에 따른 스포츠퍼슨십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이론내의 기본욕구이론에 근거한 측정도구인 기본욕구 만족척도를 가지고 성취목표성향이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 급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과 기본심리적욕구 및 스포츠퍼슨십에 차이를 알아보고, 성취목표성향의 동기적 성향에 따라 나타나는 스포츠퍼슨십에 미치는 영향력과 성취목표성향이 기본심리적욕구를 매개변인으로 스포츠퍼슨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성취목표성향, 기본심리적욕구, 스포츠퍼슨십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1) 성취목표성향(Achievement Goal Orientation)

개인이 유능함을 입증하고 주관적으로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이며, 과제성향(Task Orientation)은 성취상황에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과제숙달개발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 목표성향이고, 자아성향(Ego Orientation)은 성취상황에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우월한 능력을 입증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 목표성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제성향, 자아성향의 측정값을 성취목표성향으로 정의 하였다.

2) 기본심리적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

기본심리적욕구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이론적 근원에서 유래한 개념들이 각기 다른 시점에서 통합, 진화된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한 심리적 욕구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세 가지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 충족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의 측정값을 기본심리적욕구로 정의하였다.

3) 스포츠퍼슨십(Sportspers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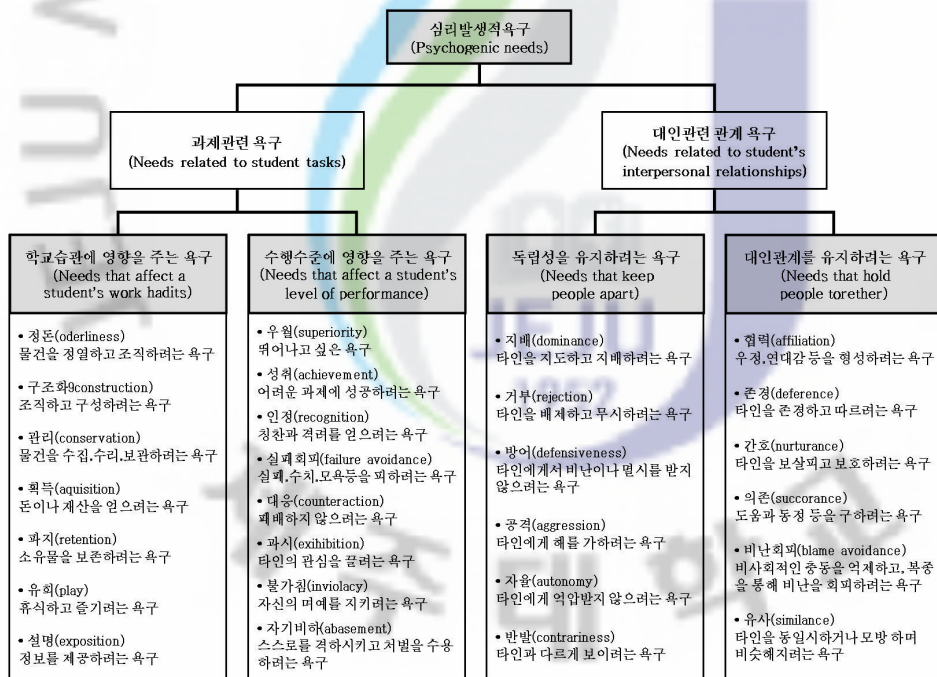
스포츠에 참가할 때 스포츠맨이 스포츠 상황에서 취하는 행위 또는 스포츠 윤리를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몰입, 최선을, 상대존중, 동료배려, 팀정신, 결과인정, 판정존중, 승부집착의 측정값을 스포츠퍼슨십으로 정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취목표성향

1) 성취동기이론

동기를 탐구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증진시키는데 있으며,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은 성취동기이다. 성취동기의 개념을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욕구(Atkinson, 1980)라고 정의하는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는 Murray(1938)에 의해서 처음 제시 되었다.



<그림 1> 심리발생적 욕구, Murray(1938)

Murray는 인간의 심리적 동기를 27가지로 구분한 후 이 동기들을 과제관련동기와 인간관계관련 동기로 구분하였다. 과제관련 동기는 다시 작업습관에 영향을 주는 동기와 성취수준에 영향을 주는 동기로 구분되며, 인간관계관련 동기는 분리동기와 결합동기로 나누어진다<그림 1>. 이후 성취동기 이론은 McClelland와 Atkinson에 의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표 1>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의 성취상황에서의 행동, McClelland, (1985)

성향	행동특징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능률적 수행이나 도전적으로 자기능력을 시험하는데 흥미를 가진다.
모험성 (adventuresome)	문제해결이 극히 어려워서 성공확률이 낮은 경우에는 도전하지 않으며, 과제 난이도가 중간 이상인 경우에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성취가능성에 대한 자신감 (self-confidence)	자신이 하는 활동의 성취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믿는다.
정력적, 혁신적 활동 (energetic, revolutionary activity)	새로운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성취동기가 잘 유발된다.
책임감(responsibility)	지시나 명령에 의하지 않고 행동의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본다.
행동결과에 대한 지식의 중요시 (knowledge of the result)	과제수행을 위해서 자신이 쏟은 노력이 성공을 가져왔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경향이 크다.
미래지향형 (future-orientation)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시점의 평가보다 미래상황을 예견한다.

McClelland(1985)는 모든 동기가 학습된 것이라고 보면서, 동기란 장래에 연고자 하는 목표반응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과거의 쾌락

이나 고통과 연합되어 있는 일정한 단서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강력한 감정적 연합체로 보았다. 그리고, 성취욕구란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욕구인데 성취욕구가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성공적인 행동이 유쾌한 것이라는 이전의 경험의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동기는 성공적인 행동과 연합되어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개인 내의 모든 동기는 학습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동기는 학습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동기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성취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의 특징을 보면 <표 1>과 같다(McClelland, 1985).

McClelland는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행동특징을 종합하였다. 성취동기란 개인으로 하여금 그의 능력에 비추어 전할 가치가 있는 일을 탐색케 하며, 그러한 일들을 능률적으로 수행케 하여 성취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한다. 또한, 우연이나 요행만으로 가능한 일에는 흥미를 갖지 않으며, 그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에 도전적인 흥미를 갖는다.(김언주, 구광현, 1998)

Atkinson(1980, 1983)은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70점이 나온 성적표를 바라보고 있는 학생의 그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성취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높은 성취욕구를 지닌 학생은 그림을 보고 ‘그는 그 점수보다는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며,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반면, 성취동기가 낮은 학생은 ‘그는 자기 성적을 보며 매우 낙심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그는 아마도 그 과목을 싫어할 것이며, 시험도 분명히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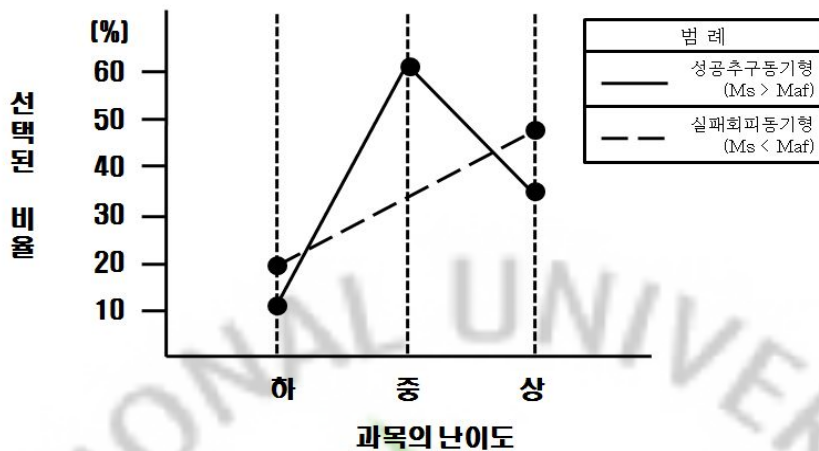
Atkinson은 동기화된 행동이란 개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동기들의 상대적 강도 또는 준비라고 보았으며, 이외에도 상황의 특징이나 상황 내에서 제시된 자극들이 동인과 행동의 종류를 결정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행동특징을 모형화 시켜 공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text{성취성향강도} = \text{성공추구동기} \times \text{성공기대치} \times \text{유인가}$$

성취경향강도(Strength tendency to achieve success : Ts)란 성취하고자 하는 행동경향성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요인, 즉 성공하려는 동기(Motive of success : Ms)와 성공기대치(Expentancy of succes : Ps), 유인가(value of incentive : Ins)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공식에서, Ms란 일정한 행동상황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이고 안정된 동기를 나타내며, Ps와 Ins의 값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과거에 개인이 경험했던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이다. 즉, Atkinson의 성취동기모형은 성공을 성취하려는 강도나 실패를 피하려는 강도를 결정짓는 배경으로서 과거의 경험을 중요시 한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성취가능성이나 성취에서 얻게 될 평가를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문제 삼았다.

이와 같이 Atkinson의 이론에서는 성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재의 결과뿐만 아니라 인간이 장래에 얻으려고 기대하는 성과에 대한 주관적 예견이 동기과정에 미친다는 미래지향적 측면을 강조한다. 특히 Atkinson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실패회피 동기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성취동기를 이해하는데 보다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였다.



<그림 2> 성취동기와 과목선택간의 관계, Weiner(1980)

Atkinson은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성공추구동기(Ms)와 실패회피동기(Maf)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공추구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실패회피 동기가 높은 학생에 비해 중간정도의 난이도 과목에 접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실패회피동기가 높은 학생은 과목에 대한 실패를 감수하면서도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는 자신의 실패를 과목의 난이도에 귀인시키려는 목적에서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실제적인 학업성취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반면에 성공추구동기에 의해서 동기화되는 학생들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공추구동기가 높은 집단은 적절한 학습동기를 형성함으로써 학교 학습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성취동기가 높으면 적절한 목적을 설정하게 되고 학습과제 수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나, 성취동기가 낮거나 실패회피동기가 높으면 자신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목표를 갖게 되고 과제 수행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학생들의 실패회피

동기는 발달 단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저학년 학생들은 과제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가까이에 접해 있는 과업에 몰두하는 매우 과업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실패회피 경향이 증가한다(Stipek, 1984; Weisz, 1979)

또한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공추구동기를 갖는 학생들은 학습과제를 실패하였을 때 성취동기가 증가되고, 실패회피동기를 갖는 학생들은 학습과제를 성공하였을 때 성취동기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성취욕구가 높은 학생은 도전적인 과제물, 높은 기준, 명백한 피드백, 재도전의 기회 등에 의해 동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높은 실패회피 욕구를 가진 학생은 성공을 위한 여러 강화, 자유로운 평가, 실패로 인한 당황으로부터의 방어 등에 동기화 된다.

<표 2> 동기유형과 과제의 성공, 실패 함수로서 동기의 변화, Weiner(1980)

	Ms > Maf	Ms > Maf
성 공	동기감소	동기증가
실 패	동기증가	동기감소

2) 성취목표성향이론

성취목표성향이론은 원래 교육학분야에서 개발되었으며 최근에 스포츠 상황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성취목표 achievement goal에 따라 성취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취목표에 따라 그 사람의 노력투입이나 동기수준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스포츠 연구자들에 의해 성취목표성향은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 되었지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정청희, 김병준, 1999).

동기심리학자들은 대부분 다음 세 가지 동기의 기본속성으로 본다. 첫째, 동기란 인간의 행동을 활성화 시키는 요소로서 이 요소는 동기의 속설들 가운데 행동을 폭발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힘 혹은 강도를 말한다. 이 요소는 동기의 추동(drive) 또는 흥분유발(arousal)의 차원을 의미한다. 둘째, 인간의 행동방향을 설정하거나 또는 일정한 목표를 지향하도록 통로화(channels) 시키는 요소로서 이 요소는 행동에서 어떤 목표를 지향하여 선택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요소는 동기의 방향(direction) 또는, 목표(goal)의 차원을 뜻한다. 셋째, 동기란 인간의 행동을 유지시키거나 또는 지속시키는 요소로서 행동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속해서 나타나도록 유지시키는 힘을 의미한다. 이 요소는 동기가 지니는 지속성 또는 행동의 차원을 말한다. 따라서 높은 동기에 의해서 유발된 행동이란 행동이 유발된 강도 혹은 활성화된 수준이 높으며, 일정한 목표를 지향하여 이 목표에 몰입한 수준이 높으며, 외부환경의 요인들로 인해서 이 행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유지시키는 행동을 말한다(박영덕, 2006).

이러한 능력은 성취 상황에서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과제(task)와 자아(ego) 목표라는 두 개의 주요 목표 측면을 유도하였다(Nicholls, 1989).

사실 스포츠 상황에는 다양한 성취목표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목표는 유능성(comprtnce) 또는 자신의 능력을 보이려는 것이다. 유능성 지각은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과제(tast)와 자아(ego)성향적인 성취목표로 구별된다. 과제성향(tast oriented goal)은 스포츠 활동에서 과제에 대한 숙련과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자기를 참고로 향상되었는가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이 목표는 기술과 학습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성취행동을 보인다. 반면 자아성향(ego oriented goal)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능력을 보이는데 관심을 둔다. 즉 능력에 대한 지각이 타인 참고적이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된 기준을 사용하여 주관적인 자기 능력을 평가한다(Duda, 1993, Robert, 1992).

이 두 목표는 개인이 가지는 특성적(dispositional) 측면으로 유능감과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직교적(orthogonal)인 개념이다.

성취목표성향이론은 최근 스포츠 참가자들의 성취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스포츠 상황에서 목표성향에 따라 개인의 성취와 관련된 인지와 정서, 그리고 행동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이론을 지지한다. 과제성향 지닌 개인은 유능감 수준과 관계없이 적응적 행동패턴 즉, 도전할 만한 과제수준을 선택하고, 노력하며, 과제에 대한 흥미와 지속성, 무능감 감소 등을 예상한다. 반면 자아성향을 지닌 개인은, 부적응적인 성취행동과 관련된다. 이러한 개인들은 낮은 능력을 지각하면 도전적인 과제를 회피하고, 성취상황에서 노력과 흥미를 기운이지 않으며 수행감소와 지속성 결여를 보인다. 물론 높은 유능감을 지닌 자아성향의 개인은 적응적인 행동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스포츠 경쟁 상황에서 늘 적응적인 행동패턴을 예상하기 어렵다(Duda, 1993).

스포츠 영역에서 선수들의 성취목표 이해하는데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Kim & Gill, 1997). 이 중 Nicholls(1984, 1989)가 제시한 성취목표 이론은 아동들의 사회 인지적 발달과정 속에서 학습 성취와 관련하여 제시된 것으로, 아동들은 자신의 능력을 다음의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인지한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 하나는 자신의 능력을 자기 자신의 과거 수행이나 지식에 기준하여 더 많이 학습하고 더욱 열심히 했으며 더 높은 자신감을 얻은 것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과제관련(task-involved) 목표성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타인의 수행결과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단지 학습을 잘했다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능력감을 인지하지 못하고 동료보다 작은 노력을 기울여 동등한 수행을 하였다든지 또는 타인과 비슷한 노력으로 더 좋은 수행을 이루었을 때 능력감을 인지하는 자아 관련

(ego-involved) 목표성향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Nicholls(1989)은 12살 정도 되었을 때 자아성향으로 자신의 능력감을 인지하게 되고, 과제관련 성향이 높으면 자아관련 성향이 낮은 직교적인 형태로 존재하나 독립된 별개의 특성이 아니라 경험과 상황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수준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안정덕, 표내숙, 박철용, 2001).

<표 3> 성취목표의 다양한 명칭(허정훈, 2005)

연구	과제성향	자아성향
Nicholls(1984) Maehr(1983) Patashnick & Nolen(1985)	과제관련 (task-involved)	자아관련 (ego-involved)
Ames & Archer(1988)	숙련 (mastery)	수행 (performance)
Ames(1992)	숙련 (mastery)	수행 (performance)
Roberts(1992)	숙련 (mastery)	경쟁 (competitiveness)
Eliot & Dweck(1983) Papaionnou(1994) Dweck & Leggett(1988)	학습 (learning)	수행 (performance)
Ames & Ames(1984)	숙련목표 (mastery-goal)	능력목표 (ability goal)

(1) 과제성향

일반적으로 과제 자체의 숙련이나 새로운 운동 기술 및 품의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과거 수행에 비교하여 진보를 강조하는 목표이다. 과제성향의 특성을 고찰하면 두 가지 개념화 할 수 있다. 첫째, 과제성향의 속성적(dispositional)인 특성으로 과제 지향 유형의 개인차와 이러한 기질적인 과제 지향을 독립적이고 과거 사회화 경험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둘째, 과제 지향의 상황적 특성으로 부모나 교사, 코치 등에 의

해 이루어지는 상황적 분위기가 개인의 과제성향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Ames, 1984).

이에 대해 Roberts(1992)는 스포츠 상황에서 경쟁, 기술, 자아의식 및 관중 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사회적 여건이 과제 지향과 연관된 능력을 평가하는 활동 목표를 발달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과제성향의 요인은 Ames(1984)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성취 상황의 구조가 과제성향을 취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학습 참여와 과정 및 과제, 숙련 등이 과제성향의 요인이다. 예를 들어 기준이라는 과제분위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과제성향의 분위기 조성요인으로 성공기준을 기술향상이나 경기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두는 것으로 보고 있다(배수진, 2005).

(2) 자아성향

자아성향은 운동기술 습득이나 향상 및 운동수행 자체를 타인의 수행과 비교에 초점을 두고 경쟁하도록 강조하는 목표로서 이러한 경우 개인의 목표는 타인의 수행 수준이 되는 것이다. 자아 관여 목표 조성요인으로는 개인간의 경쟁, 대중의 평가, 규칙적 피드백 등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코치나 부모들의 성공기준이 그 자체에 있다면 자아관여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자아관여 분위기 조성 요인으로 승리에 성공기준을 두는 것으로 보고 있다(Ames, 1984).

이는 스포츠나 운동 상황에서 목표지향의 성취목표를 가진 선수는 부모나 교사, 코치 등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자아성향의 성취목표를 가진 선수들의 개인간의 경쟁, 대중의 평가, 규칙적인 분위기에 의해 동기가 부여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동기적 분위기는 개인 성취목표성향에 큰 영향을 준다.

2. 기본심리적욕구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기본 욕구로서 유능성(competence), 자율성(autonomy), 관계성(relatedness)을 들고 있다. 이 세 가지 기본욕구충족은 자기결정을 통한 내적동기의 발생을 자극하게 된다고 주장한다(Deci and Ryan, 1985; 2000; Ryan and Deci, 2000).

나머지 세 가지 구성이론 인지평가이론(CET; Cognitive Evaluation Theory), 유기체통합이론(OIT; 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인과성향이론(COT; Causality Orientations Theory)들은 이들 기본적 심리욕구의 충족과 관련되어 있다(Deci and Ryan, 2000). Deci 와 Ryan(2000)은 기본적인 심리욕구는 심리적 건강과 성장, 내적 동기와 주관적 만족의 경험, 최적의 기능, 자아실현을 위한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운동시작의 이유나 목적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기본욕구이론(BNT)의 이론전개는 기본욕구의 충족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기본욕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주관적 안녕과의 관계가 주종을 이룬다(Ryan and Deci, 2002). 개인의 행동조절 유형을 자율성의 정도를 가지고 구분하며 자기결정은 내재적 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자기결정이론은 자율성(autonomy), 유능감 지각(perceived 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세 가지 기본심리 욕구를 갖는다(Deci and Ryan, 2000; Levesque et al.,2004).

이러한 기본욕구는 획득보다는 타고나는 필수조건이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개인의 건전한 사회성 발달 및 내적 안정감과 같은 자연적 성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명희, 김아영, 2008). 또한 최병연(2002)은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고, 외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을 내면화 시키도

록 하는 통합된 조정에 이르도록 하기위해서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박철민, 2009).

1) 자율성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각하여 스스로가 행동의 주체자요, 조절자라는 신념을 가리킨다.(이명희 2008).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싶은 내적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또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동기 이론가들은 이야기한다. 이는 외적인 동기 때문에 목표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활동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DeCharms, 1976; Deci, 1975; Deci and Ryan, 1985; 이명희 2008). 1980년대 Deci가 자기결정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유능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보면서 자기결정의 3가지 기본욕구 중에서 가장 핵심 요소로 보았다(Ryan, 1982; 이명희, 2008)

자율성은 행동의 개시와 조절에 있어 선택을 경험하려는 욕구이고, 환경적 사건들 보다는 개인적 선택들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게끔 하려는 욕구를 반영한다(박철민, 2009).

정은이(2007)는 자기결정적일때 행동은 자유롭게 느껴지고, 행동이 자기결정적인 사람은 통제를 받는 사람에 비해 수행과 성취의 증진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높은 수준의 지각된 유능감, 자기 가치감 및 자기 존중감을 경험하며, 문제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쉬운 성공보다는 적정도전을 선호하며 긴장과 압박보다는 흥미와 즐거움과 같은 과제와 관련된 정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2) 유능성

유능성이란 개인이 속한 환경과의 상호 작용속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사용할 기회들을 경험할 때 충족되는 것이다(Deci and Ryan, 2000). Deci 와 Ryan(1980)은 이러한 유능성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내적 동기를 증진시키고 내적 동기에 미치는 피드백의 효과가 유능성에 대한 지각이 매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Deci and Cascio, 1972; Vallerand and Reid, 1984). Stiek(1992)는 유능성과 자기결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활동이나 상황을 통해 내적 동기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다(이명희, 2008).

유능성은 자신이 환경과 효능적으로 상호 작용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능력을 연마하고 만족을 경험하기 위한 욕구이다(Deci and Ryan, 1985). 이 유능성은 효능성 동기에 기반을 둔다. 자신의 역량과 기술을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적정도전을 찾고 도달하려는 욕구를 반영한다. 가능성이 있는 시도와 그들 환경의 통제를 위해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함축한다. 반면 유능성이 낮은 경우 상황에서 멀어지려는 성향이나 불안과 불확실한 경험과 같은 행동에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다(천경민, 2009).

유능성은 개인적인 기술과 재능을 발달시키고, 향상시키며, 세련되게 하고자 하는 동기를 발생시킨다. 정은이(2007)는 유능성을 포함하는 주요한 환경적 사건은 정적 도전이라 하였으며 도전과 기술이 모두 높은 사람들은 최대의 즐거움, 강한 집중 및 과제에 대한 충분한 몰두로 특정 지어지는 심리적 상태인 FLOW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자신이 지각할 수 있는 능력과 도전이 최적의 상태일 때 집중력이 높아지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게 되며 그러한 수행에서의 성공적 경험은 최적의 경험이 되며, 이러한 상태가 곧 즐거움이 된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 지각, 즉 유능감이 중요하다(김규동, 2007).

3) 관계성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관심을 주고받는다느 느낌이며, 다른 개인들과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이다(Baumeister and Leary, 1995; 이명희, 2008. 재인용). 최근에는 인지적 요인 즉,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시연, 정교화, 조직화 등 뿐만 아니라 정의적 요인도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다. 인간의 서로 다른 감정을 학습하는 동안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학습 효과를 얻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습자 개개인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은 학습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성공의 열쇠 중 하나이다(박철민, 2009).

Ryan and Deci(2002)는 관계성이 유능감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와 통합적인 내적 동기와 관련이 있음을 제안하고 애착이론을 통해 실제로 안정된 유아는 양육자의 자율성 지지 정도와 아동의 탐색활동 정도가 상관이 있고, 관계성 욕구 만족을 하는 경우 내적으로 동기화된 탐색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Frodi, Bridges, and Grolnick, 1985; 이명희, 2008). 관계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느낌과 관련이 있다. 주요타자나 동료에 있어 긍정적 관계의 느낌은 강화의 역할을 한다. 다른 사람과의 단순 상호작용은 관계성을 포함하는 충분조건이지만 관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맺으려고 하는 사회적 유대가 성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천경민, 2009).

정은이(2007)는 타인에 대한 친교는 어떤 사람이 타인의 신념, 가치 혹은 행동방식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채택하여 수용하는 과정인 내재화를 지지하는 사회적 맥락을 제공하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3. 스포츠퍼슨십

1) 스포츠퍼슨십의 개념

스포츠퍼슨십의 정의는 ‘스포츠에 참가할 때 스포츠참여자가 행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스포츠참여자에게 기대되는 행위를 스포츠퍼슨십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스포츠퍼슨십은 ‘스포츠 참여자 다운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황유미, 2007).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스포츠퍼슨십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Bredemeier & Shieds, 1993). 사실, 스포츠참여자에 관한 연구의 핵심적 논쟁거리는 스포츠퍼슨십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된 정의의 문제이다(Weiss & Bredemeier, 1986). 그러나 불행히도 스포츠퍼슨십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은 어떠한 것이 가장 적절한 정의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스포츠퍼슨십은 특정 스포츠 행동에 대한 일반적 태도(Haskins, 1960), 또는 윤리규정을 준수하는것(Kroll, 1976), 게임과 관련된 긍정적 대인관계(Giebink & McKenzie, 1985)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또한 Weiss와 Bredemeier(1986)는 스포츠퍼슨십을 관습과 성공전략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가진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추론 유형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2) 스포츠퍼슨십의 이론적 토대

(1) 도덕성과 스포츠퍼슨십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규범을 준수할 줄 아는 것은 스포츠에서 겪게 되는 좌절, 반칙, 공격에 대한 태도를 길러주며 이러한 요인은 인간으로

서의 선수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스포츠가 지닌 순기능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스포츠는 지나친 상업주의로 말미암아 경쟁성, 맹목적 최고의 추구, 승리 지상주의 등과 같은 눈앞의 가치추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 고유의 고귀한 가치가 매몰되고 있다. 심지어 Blair(1985)는 경쟁적 경기 참가가 증가할수록 페어플레이의 강조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스포츠퍼슨십을 존중하는 윤리성이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운동경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Hayford, 1987).

이러한 스포츠 도덕성 위기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운동선수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에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선수들의 크고 작은 사건들은 바로 선수들의 도덕성 문제로만 볼 수 있을 것인가? 대표적으로 선수들의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포츠퍼슨십이고 이를 강조하고 교육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퍼슨십이 하나의 구호로 전락하고 있는 현상은 선수 개인의 도덕성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이학준, 2003).

도덕성 발달은 개인의 인지적 또는 정신적 발달 수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추상적 사고능력이 없는 어린이는 상황의 의미와 관계없이 다른 아이의 자극(예 : 다른 아기가 몸을 부딪힘)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응(예 : 가격함)을 한다. 그러나 이때 추상적 사고 능력이 발달한 청소년은 우선 상황의 전개를 판단하고, 만약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선수들은 규칙준수와 스포츠퍼슨십, 페어플레이 정신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기조절, 자기수양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가치 및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 시킨다.

(2) 정신분석 이론의 관점

정신분석학적 관점(psychoanalytic view)에서 볼 때 청년기는 아동기에서 시작된 초자아의 발달이 계속되며 도덕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된다. 도덕적 자아 이상을 지향하는 부모에 대한 동일시는 계속되며, 양심도 점차 강화되어 사회가 설정하고 있는 행위규범을 어겼을 때 죄책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두드러진 특징은 죄책감을 처리하는 방략이 발달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함으로써 죄책감을 줄일 줄 알며, 스스로 자기 행동을 규제하고 처벌함으로써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것이 바로 청년기 도덕성이 성숙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신분석 이론가들은 도덕성을 문화 속에 존재하는 규범과 가치에서 찾는다. 그들은 도덕성이 발달되어 가는 과정을 부모와의 동일화 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초자아 속에 문화적인 규범과 가치가 내면화되는 것으로 본다. 도덕발달에 대한 정신 분석이론의 입장은 Freud와 신 Freud 학파 간에는 차이가 있다(최순영과 김수정, 1995).

Freud(1933)는 부모가 처벌 지향적일 때 아동에게 강한 초자아가 발달된다고 하여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Freud에 의하면 초자아는 동성 부모에 대한 적대적 경쟁심(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발생하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형성된다. 즉 초자아는 동성 부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성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동성 부모의 도덕기준을 내면화함으로써 발달한다. 이처럼 Freud는 초자아(도덕성)라는 것은 부모의 처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모의 도덕기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속성을 내면화함으로써 발달하는 것으로 보았

다. 그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원초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도덕적이며 쾌락 지향적이다. 따라서 부모들이 옳은 행동은 보상하고 그릇된 행동을 처벌할 때 도덕성이 발달한다.

Freud와는 달리 그의 후학들(Erickson, 1963)은 도덕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처벌보다는 애정 지향적 훈육이 강한 초자아를 발달시킨다고 본다. 애정 지향적 훈육이라는 것은 옳은 행동을 할 때 상을 주고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애정을 유보함으로써 사랑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훈육방법이다. 신 Freud 학파에 의하면 아동들은 초기에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부모를 원망하고 보복하려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부모의 사랑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억압하고 부모의 도덕 기준을 내면화함으로써 부모의 사랑을 확보한다고 한다. 부모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나 초자아에 복종하는 것이다. 도덕 발달에 있어서 애정 지향적 훈육을 강조하는 신 Freud 학파의 주장을 지지하는 경험적 연구 또한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Freud 학파인 Erickson(1963)은 자아가 강한 아동이 약한 아동보다 도덕적으로 성숙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 분석학적 입장은 초자아가 발달되면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살피고 감시할 수 있다고 본다. 초자아가 잘 발달된 아동은 자신에 대하여 엄격하고,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죄책감, 수치심, 혹은 자존심이 손상됨을 느낌으로서 자아를 벌한다. 즉 부정적 감정을 피하기 위해 도덕적 규범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라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도덕적 기능의 본질을 죄책감을 피하기 위하여 양심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Power, 1994).

(3) 사회학습 이론의 관점

사회학습론적 관점(social learning view)은 도덕적 모델의 모방과 강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청년들은 단순히 모델을 모방할 뿐 아니라 모델이 도덕적으로 행동했을 때와 행동하지 않았을 때 초래되는 결과를 명백히 인식한다. 부모나 교사에 한정되는 아동기 모델에 비해 청년기는 친구, 선배, 코치, 방송매체 등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부모는 청년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도덕적 모델로서 작용한다.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도덕성을 사회적 규범, 더 넓게는 타인 지향적 이타행위(altruistic behavior)와 동일하게 본다. 이들 또한 정신분석학적인 입장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함으로서 발달한다고 본다. 그러나 내면화 과정에 대한 사회학습 이론가들의 입장은 정신분석이론가들의 입장과 다르다.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내면화 과정이 부모와의 동일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한 모델링과 강화(reinforcement)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Bandura, 1977). 어린이들은 타인들이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모방하기 때문에 타인들의 도덕적 행동이 보상을 받고 부도덕한 행동이 벌을 받는 것을 관찰하면 부도덕한 행동은 금지하게 되고 도덕적 행동은 강화된다는 것이다.

Bandura(1977)에 의하면 도덕적 행위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인의 욕구와 소원을 충족시켜 준다. 즉 도덕적 행위는 남을 도우면 기분이 좋은 것과 같은 자기 강화의 측면이 있고, 잘못이나 불안 그리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벌을 피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함으로서 자기만족을 얻으려는 동기가 개인으로 하여금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개인의 도덕성을 보상이나 벌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이타적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4) 인지발달론적 관점

인지발달론적 입장은 흔히 구성주의(structuralism)라고 하는 인지심리학자들의 입장이다.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사회학습 이론가들의 입장은 도덕성이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 데 반해 인지발달론자들은 이러한 상대적인 견해를 부정하고 도덕이라는 것은 “갈등 상황을 정의와 박애정신에 입각하여 판정하는 과정”이라는 철학적인 정의를 내린다(Power,1994). 그들은 도덕 발달이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에 대부분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인지발달론자들에 의하면 도덕적 추론 능력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고 과정으로써 성장함에 따라 더 적절한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이행하는 일련의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 이들은 정신분석학이나 사회학습이론가들과는 달리 개인을 환경에 의하여 형성된 규범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로 보지 않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도덕적 철학을 확립해 가는 능동적 존재로 보았다. 인지발달론자의 대표자인 Piaget와 Kohlberg의 이론을 살펴본다.

① Piaget의 이론

인지발달적 관점(cognitive development view)의 청년기 도덕성은 형식적 조작사고의 발달과 더불어 획득되는 가설설정능력을 인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 나아가 사회전반의 도덕적 특성에 대해 관념적이며 이상주의적인 가능성을 그리게 된다. 인지발달적 관점에서 도덕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Piaget(1965)이다.

도덕성 발달의 첫 단계는 2-4세 사이의 아동이 하는 규칙이나 질서에 대한 도덕적 인식 없이 하는 행동으로 도덕 갈등 사태에서 일관성 있는 도덕적 인식을 끌어내기 불가능한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5-7세 아동들이 일상 활동 속에는 자신이 따라야 할 규칙, 질서 또는 사회적 정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와 . Piaget 같은 2단계 아동의 절대주의적인 도덕적 사고를 도덕적 실재론(moral realism)이라 부른다. 2단계의 특징의 하나는 타율적 도덕성(heteronomous morality)에 지배되는데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나쁜가 또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에 의해 도덕적 선·악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다른 하나는 도덕성은 내재적 정의(immanent justice)에 의해 지배된다. 이 단계는 규칙의 절대성을 믿기 때문에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벌이 따라온다고 믿는다.

8-11세경의 아동은 도덕적 상대론(moral relativism)의 단계로서 사회적 규칙은 임의적인 약속이며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즉, 결과가 아닌 동기나 의도에 의한 도덕적 사고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Piaget는 이 단계를 자율적 도덕성(autonomous morality)의 단계로 부른다.

11세경에 조작적 사고가 가능해 지면서 새로운 규칙을 생성할 수 있으며, 가설적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규칙을 미리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단계의 도덕적 추론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및 정치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Piaget의 이론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타당성이 지지된 반면 아동의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나 의도를 추론하는 능력은 Piaget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도덕적 추론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② Kohlberg의 도덕 발달 이론

Kohlberg(1969)는 Piaget의 도덕 발달이론을 더욱 정교화하고 확장시켰다. 그러나 그는 Piaget와는 달리 도덕 발달의 수준을 실제적 행동보다 사고능력과 판단 능력으로 구분하려 하였다. 그는 도덕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곤경상황(dilemma)에 빠졌을 때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에게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인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상의 상황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개개인이 어느 정도로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가를 규정하는 것보다 어느 수준의 추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는 도덕적 발달이 세 수준의 순서로 발전되며 각 수준은 두 하위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각 단계는 도덕에 대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며 그 발달은 인지적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Kohlberg의 도덕 발달의 여섯 단계는 <표 4>와 같다.

<표 4> 도덕발달의 여섯 단계(Kohlberg, 1969)

수준 I : 전인습적 도덕적 추리 :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수준이다.		
단계 1	처벌과 복종 지향	의도보다 결과를 중시하여 결과를 최소화 하거나 최대화하려 한다.
단계 2	수단적 쾌락주의	결과가 욕구를 만족시켜 주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다.
수준 II : 인습적 도덕 추리 :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대가 판단의 기준이다.		
단계 3	착한 사람 지향	판단의 기준을 행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둔다.
단계 4	법과 질서 지향	법은 법이니 지켜야 된다.
수준 III : 후인습적 도덕 추리 : 개인의 양심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다.		
단계 5	사회 계약 및 법률적 지향	사회가 동의하는 개인의 권리가 기준이다.
단계 6	보편적 윤리적 원리원칙 지향	예외 없는 도덕적 원칙

Kohlberg에 의하면 각 발달 단계는 순서대로 진행되며 일단 한 사람이 도덕적 발달의 상위 단계에 도달하면 결코 전 단계로 퇴행하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도덕적 성장은 도덕적 곤경상황에 직면할 때 일어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갈등 즉 인지적 불균형에서 온다. 이 때 개인은 자신의 도덕적 추론 능력을 활용하여 갈등을 해결한다. 도덕적 추론 능력은 다른 사람의 역할이나 입장을 상상할 수 있는 인지능력과 함께 발달된다. 이러한 상상 능력은 자신의 도덕적 추론 능력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다음 수준의 도덕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덕적 원리를 형성하게 한다. 그의 도덕 이론에서 도덕성의 핵심은 정의이고 도덕적 발달이란 정의에 의하여 도덕적 곤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이다.

4. 선행연구 고찰

1) 목표성향과 기본심리적욕구와의 관계

많은 동기이론들 중 최근 많은 연구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이론은 Nicholls(1984, 1989)의 성취목표이론(achievement goal theory)과 Deci와 Ryan(1985, 2002)의 자기결정이론이다. 이들 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두 이론의 주요한 구성개념 사이의 접목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Ntoumanis, 2001).

성취목표 이론의 중심은 개인의 유능성 지각과 환경 또는 동기분위기의 영향에 두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성취상황에서 두 가지의 다른 접

근을 반영하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목표성향은 주로 과제와 자아성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스포츠상황에서도 검증되고 있다. 과제성향적인 사람들의 유능감 평가기준은 자기숙달인 반면에 자아성향적인 사람의 경우에 유능감은 타인을 압도하고 우수한 능력을 증명하려는데 근거를 둔다.(Hein & Hagger, 2007).

Deci와 Ryan(1985, 1991)에 의하면 타고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가 자기결정동기의 기본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기결정이론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방해하는 사회맥락(social contexts)의 본질(nature)에 대한 주요한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용각(2008)의 연구에서는 과제성향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에만 정적 관계가 있으며, 자율성과 관계성과는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과제성향은 기술학습, 자극추구, 건강체력, 사교, 몸매관리 순으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무동기와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자아성향은 경쟁과 시, 무동기, 몸매관리 순으로 정적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Standage 등(2003)의 연구에서 자율적분위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모두에 정적관계가 있고, 숙달분위기는 자율성 욕구와 정적 관계가 있지만, 수행분위기는 심리욕구만족에 관계가 없고 자율적 분위기와는 부적관계가 있다고 하여 수행분위기 조성은 심리욕구만족에 부정적이라고 하면서, 자율적 분위기 또는 과제성향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류민정, 김인형(2007), 정봉혜(2006), 류민정, 표내숙(2007), 임상용, 오진식(2009)의 연구에서는 과제지향적인 성취목표가 유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송인섭, 박성윤(2000)은 숙달목표가 높을수

록 내재적 가치가 증가하며, 이러한 내재적 가치의 증가는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정용각(2008)의 연구에서는 과제성향과 심리적기본욕구와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성향은 자율성에는 부적 관계를 유능성은 정적관계를 보였으며, 관계성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으나, Butler(1987), Ntoumnis(2001), Standage, Duda, 그리고 Ntoumannis(2003) 등은 과제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기본적 심리욕구만족이 더 높을 수 있으며, 특히 자율성과 유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2) 목표성향과 스포츠퍼슨십과의 관계

전통적으로 스포츠 활동에서 행위규범으로 여겨져 왔던 스포츠퍼슨십이 위너십(winnership)으로 변질되어, 스포츠상황이 승리를 통한 부의 상황이동의 수단으로 폄화되고 있다(정의권, 김용주, 최병호, 2004). 스포츠 상황이 도덕적 발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직관적인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의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는 매우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즉, 스포츠에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내재되면서 다양한 도덕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서양에서의 새로운 스포츠행위 규범에 대한 제시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해 왔다(최선철, 1996).

개인의 목표성향은 특정 활동에 대한 신념이나 특정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을 하거나 일탈적인 행동을 유도하며. Nicholls(1989)는 이러한 목표성향의 차이는 세계관의 차이를 함축한다고 제안하였다.

Duda, (2001); Duda & White, (1992); Roberts, (2001)의 연구에서는 자

자아성향이 속임수와 부정행위와 같은 부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고, Lemyre et al., (2002)은 과제성향은 도덕적 태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박중길(2009)은 과제성향은 스포츠퍼슨십의 하위변인인 운동몰입, 최선을, 상대 존중, 동료배려, 팀 정신, 결과 인정, 판정존중에 정적관계가 있으며, 특히 과제성향이 낮고 자아성향이 높을 때 선수들이 승부에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Lee, Whitehead, Ntoumanis, & Hatzigeriadiis, 2008; Sage, Kavussanu, & Duda, 2006) 정봉해(2005)의 연구에서는 과제성향이 최선과 팀 정신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지만 자아성향은 시합존중을 예측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Dunn & Causgrove Dunn, 1999; Lemyre et al, 2002)은 자아성향이 일부 스포츠퍼슨십 성향(게임 존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Gano-Overway 등 (2005)은 자아성향과 스포츠퍼슨십 사이에 관계가 없으며, Sage 등(2006)도 목표성향이 축구선수들의 친사회적 판단과 행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박영덕(2006); 정봉해, (2005); Duda, (1991)는 과제성향에 의해 운동몰입이 예측되는 반면 자아성향은 운동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스포츠퍼슨십의 하위요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의 가설

본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운동선수들의 학교급간에 따라 성취목표성향, 기본심리적욕구 및 스포츠퍼슨십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성취목표성향은 , 기본심리적욕구에 상이한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성취목표성향은 스포츠퍼슨십에 상이한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기본심리적욕구는 스포츠퍼슨십에 상이한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성취목표성향은 기본심리적욕구를 경유하여 스포츠퍼슨십에 상이한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축구선수들 중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유목적표집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표집 하였다. 설문지는 총 337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거나, 무기입 된 자료를 제외한 310명의 자료만을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사례수(%)	계
성별	남성	310(100.0)	310
	학년		
	중학교 1학년	53(17.1)	310
	중학교 2학년	56(18.06)	
	중학교 3학년	69(21.94)	
	고등학교 1학년	44(14.19)	
	고등학교 2학년	44(14.19)	
	고등학교 3학년	44(14.19)	
주전여부	주전	154(49.68)	310
	비주전	156(50.32)	
종목	축구	275(88.71)	310
	야구	35(11.29)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설문지이며, 설문지의 내용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 2문항, 운동종목에 관한 항목 1문항, 현재 팀 내 위치에 대한 항목 1문항, 운동에 관한 목표성향 13문항, 기본심리적욕구 12문항, 스포츠퍼슨십 29문항 총 58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 지표 및 내용 그리고 문항 수는 <표 6>과 같다.

<표. 6> 설문지 구성 지표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1), 학년(1)	2
운동종목	종목(1)	1
주전여부	주전여부(1)	1
목표성향	과제성향(7), 자아성향(6)	13
기본심리적욕구	관계성(4), 자율성(4), 유능성(4)	12
스포츠퍼슨십	운동몰입(4), 최선(4), 상대존중(4), 동료배려(4), 팀정신(3), 결과인정(3), 판정존중(4), 승부집착(3)	29
총 문항		58

1) 목표성향

목표성향 설문지는 Nicholls(1989)의 이론틀을 Duda(1992, 1993)가 스포츠 상황에 적용한 검사지(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 : TEOSQ)를 토대로 김병준(2001)이 국문 판으로 번안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요인(과제성향, 자아성향) 1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아주 많이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표 7> 목표성향의 기술통계량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인	문항	기술통계			요인적재치		공통분
		M(SD)	왜도	첨도	1	2	
과제성향	과제5	3.46(1.056)	-.215	-.297	.858	-.091	.654
	과제7	3.74(1.090)	-.661	-.063	.828	-.074	.612
	과제4	3.65(1.018)	-.546	-.064	.822	-.068	.615
	과제3	3.49(1.044)	-.387	-.204	.716	.071	.577
	과제6	3.52(1.019)	-.496	.014	.685	.133	.592
	과제1	3.48(1.032)	-.455	.070	.659	.105	.524
자아성향	자아3	2.78(1.803)	.128	-.419	-.187	.808	.514
	자아2	3.19(1.064)	-.348	-.179	.060	.780	.667
	자아4	2.81(1.039)	.080	-.179	-.045	.728	.494
	자아6	3.09(0.610)	-.283	-.274	.057	.699	.538
	자아1	2.98(1.083)	.038	-.277	.124	.673	.565
	자아5	3.15(1.060)	-.166	-.232	.231	.440	.364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 = .903				고유치	5.388	1.337	
Bartlett의 구형검정 = 1982.488				공통분산%	44.900	11.143	
df=66, p=.000				누적분산%	44.900	56.044	
Cronbach's Alpha					.896	.860	

2) 기본심리적욕구

본 연구에 사용된 기본심리적욕구는 박중길과 김기형(2008)이 관련연구들에서 사용된 관련연구를 토대로 대학 운동선수용으로 제작된 기본심리적욕구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연구대상이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인 점을 감안하여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요인(관계성, 자율성, 유능성)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아주 많이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표 8> 기본심리적욕구의 기술통계량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인	문항	기술통계			요인적재치			공통분
		M(SD)	왜도	첨도	1	2	3	
관계성	관계2	3.90(1.011)	-.929	.563	.926	-.071	.035	.817
	관계3	4.04(.924)	-.794	.396	.814	-.097	.076	.628
	관계4	3.74(1.013)	-.469	-.326	.779	-.023	.058	.615
	관계1	3.64(1.124)	-.512	-.398	.662	.253	-.211	.584
자율성	자율3	3.14(.994)	.121	-.015	-.029	.941	-.005	.857
	자율4	2.91(1.165)	.291	1.165	-.073	.590	.056	.345
	자율2	3.24(.958)	.017	.034	.213	.510	.056	.439
유능성	유능4	2.90(1.093)	.204	-.496	.032	.020	.982	.999
	유능3	2.52(1.062)	2.52	1.062	-.050	.354	.420	.411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 .812				고유치	1.962	2.742	.990	
Bartlett의 구형검정= 1243.476				공통분산%	21.805	30.463	11.005	
df=36, p=.000				누적분산%	21.805	52.268	63.273	
Cronbach's Alpha					.870	.748	.728	

3) 스포츠퍼슨십

스포츠퍼슨십 설문지는 성창훈(2003)이 Vallerand 등(1997)의 다차원적 스포츠퍼슨십 성향척도(Multidimensional Sportpersonship Orientation Scale : MSOS)를 번안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8개 요인으로 구성된 29개 문항의 한국형 다차원적 스포츠퍼슨십 성향척도(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Sportpersonship Orientation Scale : KMSOS)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8요인(최선, 판정존중, 동료배려, 팀정신, 승부집착, 상대존중, 운동몰입, 결과인정)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아주 많이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표 9> 스포츠퍼슨십의 기술통계량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인	문항	기술통계				요인적재치								공통분
		M	SD	왜도	첨도	1	2	3	4	5	6	7	8	
최선	최선1	3.578	0.927	0.012	-0.340	.844	.034	.135	.043	.020	.134	.188	.074	.792
	최선3	3.412	0.937	0.151	-0.436	.782	.074	.264	.140	-.067	.160	.149	.141	.779
	최선2	3.550	0.883	-0.08	-0.183	.780	.134	.117	.243	-.096	-.008	.091	.057	.721
	최선4	3.447	0.950	0.107	-0.511	.570	.129	.139	.364	.030	.306	.042	.324	.695
판정 존중	판정존중3	2.716	1.112	0.341	-0.483	.060	.827	.043	.105	.074	.055	-.099	.044	.720
	판정존중2	3.003	1.105	0.065	-0.539	.133	.773	.143	.090	-.035	.041	.102	.173	.686
	판정존중1	3.153	1.054	0.037	-0.497	.053	.756	.074	-.017	-.043	.013	.171	.170	.640
	판정존중4	2.671	1.052	0.257	-0.376	.043	.727	-.052	.075	.126	.244	-.022	-.026	.615
동료 배려	동료배려2	3.530	0.940	-0.216	-0.056	.123	.033	.787	.243	.012	.195	.115	.104	.756
	동료배려3	3.591	0.933	-0.101	-0.231	.191	.003	.780	.237	.085	.232	.042	.061	.767
	동료배려4	3.438	0.966	-0.134	-0.106	.355	.200	.641	.249	-.013	-.002	.035	.175	.671
팀정신	팀정신2	3.351	0.999	-0.032	-0.285	.217	.127	.266	.790	.080	.198	.058	.118	.820
	팀정신3	3.575	0.952	-0.183	-0.113	.232	.033	.246	.751	.086	.177	.130	.104	.747
	팀정신1	3.412	0.974	0.040	-0.471	.135	.154	.469	.646	.026	-.008	.193	.129	.735
승부 집착	승부집착3	2.489	1.191	0.313	-0.764	-.077	-.013	.033	.087	.889	.004	-.010	-.066	.810
	승부집착2	2.649	1.216	0.215	-0.844	-.012	-.112	.163	.095	.857	.082	.040	.087	.798
	승부집착1	2.166	1.040	0.782	0.327	-.009	.338	-.140	-.057	.748	.031	-.084	.015	.704
상대 존중	상대존중2	3.409	1.091	-0.316	-0.379	.141	.205	.150	.078	.068	.831	.109	.091	.806
	상대존중1	3.450	1.018	-0.277	-0.075	.178	.105	.220	.240	.044	.776	.084	.152	.783
운동 몰입	운동몰입1	3.802	1.012	-0.621	-0.073	.113	.063	.119	.202	-.022	.029	.852	.184	.833
	운동몰입2	3.652	1.079	-0.428	-0.461	.434	.056	.065	.051	-.026	.218	.750	.056	.812
결과 인정	결과인정2	3.450	0.996	-0.019	-0.499	.101	.178	.153	.125	-.007	.005	.217	.789	.751
	결과인정3	3.473	1.013	-0.270	-0.229	.234	.160	.108	.138	.040	.294	.026	.718	.715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860					고유치	7.305	2.505	2.168	1.399	1.121	1.092	.854	.713	
Bartlett의 구형검정= 3460.256					공통분산%	31.762	10.890	9.427	6.082	4.876	4.748	3.712	3.099	
df=253, p=.000					누적분산%	31.762	42.652	52.079	58.161	63.037	67.785	71.497	74.596	
Cronbach's Alpha						.856	.807	.808	.837	.791	.782	.742	.604	

3. 연구절차

자료 수집을 위하여 사전에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운동부의 지도자와 전화 통화 또는 면담을 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 배포와 회수는 본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선수들에게 설문지의 내용과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으며, 조사는 2010년 6월 중에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지를 완료하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350부였다.

4. 자료처리

최종적으로 선정된 자료들은 SPSS 12.0과 Amos 6.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내적 일관성을 기준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 의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넷째, 성취목표성향, 기본심리적욕구, 스포츠퍼슨십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성취목표성향이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간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성취목표성향, 기본심리적욕구, 스포츠퍼슨십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공변량 구조분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모든 분석에서 유의 수준은 $\alpha=.05$ 로 설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성취목표성향,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 간에 상관관계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와 기본심리적욕구 그리고 스포츠퍼슨십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표 10>.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성취목표 경우 자아는 기본심리적욕구인 자율성($r=.293, p<.01$)과 유능성($r=.393, p<.01$)과 정적상관을 보였지만, 관계성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r=.084, p>.05$). 성취목표 유형인 자아와 스포츠퍼슨십 간의 관련성에서는 자아와 팀 정신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들인 운동몰입($r=.305, p<.01$), 최선($r=.159, p<.01$), 상대존중($r=.172, p<.01$), 동료배려($r=.140, p<.05$), 결과인정($r=.134, p<.05$), 판정존중($r=.206, p<.01$) 그리고 승부집착($r=.152, p<.01$)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목표성향의 과제인 경우 기본심리적욕구인 관계성($r=.248, p<.01$), 자율성($r=.407, p<.01$) 그리고 유능성($r=.258, p<.01$)과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목표성향 과제와 스포츠퍼슨십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성 검증에서도 승부집착을 제외한 모든 하위 요인들 운동몰입($r=.382, p<.01$), 최선($r=.273, p<.01$), 상대존중($r=.172, p<.01$), 동료배려($r=.279, p<.01$), 팀 정신($r=.270, p<.01$), 결과인정($r=.322, p<.01$), 그리고 판정존중($r=1.44, p<.01$)에서 정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 보다는 과제성향이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 하위변인들 간에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본심리적욕구 하위변인인 관계성, 자율성, 그리고 유능성은 스포츠퍼슨십 하위요인들 간에 대체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표 10> 성취목표성향,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센십 간의 상관관계

요인	자아	과제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	운동 몰입	최선	상대 존중	동료 배려	팀정신	결과 인정	관정 존중	승부 집착
자아	1												
과제	.603(**)	1											
관계성	.084	.248(**)	1										
자율성	.293(**)	.407(**)	.467(**)	1									
유능성	.393(**)	.258(**)	.317(**)	.597(**)	1								
운동 몰입	.305(**)	.381(**)	.373(**)	.553(**)	.509(**)	1							
최선	.159(**)	.273(**)	.285(**)	.464(**)	.455(**)	.687(**)	1						
상대 존중	.172(**)	.217(**)	.253(**)	.397(**)	.487(**)	.497(**)	.586(**)	1					
동료 배려	.140(*)	.279 (**)	.418(**)	.387(**)	.352(**)	.421(**)	.612(**)	.649(**)	1				
팀정신	.043	.270(**)	.448(**)	.375(**)	.349(**)	.408(**)	.546(**)	.585(**)	.742(**)	1			
결과 인정	.134(*)	.322 (**)	.400(**)	.316(**)	.330(**)	.414(**)	.474(**)	.555(**)	.580(**)	.570(**)	1		
관정 존중	.206(**)	.144(*)	.069	.292(**)	.275(**)	.279(**)	.271(**)	.399(**)	.254(**)	.266(**)	.345(**)	1	
승부 집착	.152(**)	-.013	.089	.102	.181(**)	-.060	-.031	.135(*)	.076	.138(*)	.010	.112(*)	1

**p<0.01, *p<0.05

2. 성취목표성향,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에 대한 설명력

2가지(과제·자아) 동기유형이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의 각 하위 요인에 미치는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와 기본심리적욕구 그리고 스포츠퍼슨십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취목표 동기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 하위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1> 참조).

전반적으로 2가지 성취목표 동기유형이 3개 요인의 기본심리적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관계성에서 설명력은 6.8%로($F=11.379$, $p<.000$), 자율성 설명력은 16.9%($F=31.508$, $p<.000$), 그리고 유능성 대한 설명력은 15.5%로($F=28.464$, $p<.000$)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성취목표는 관계성 보다는 자율성과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취목표 동기유형 변인들 중에 관계성($\beta=.31$) 자율성($\beta=.07$)에 가장 큰 영향력일 미치는 변인은 과제이며, 유능성에는 과제보단 자아($\beta=.37$) 성향이 더 많이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퍼슨십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운동몰입 15.4%, 최선 0.7%, 상대존중 0.5%, 동료배려, 0.79%, 팀 정신, 0.96%, 결과인정 11%, 판정존중 0.43% 그리고 승부집착 0.4%으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각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운동몰입에서 과제($\beta=.31$), 자아($\beta=.11$)로 나타났으며, 최선에서 과제($\beta=.27$)가 자아($-.00$)보다 높았고, 상대존중에서 과제($\beta=.17$)가 자아($\beta=.06$)보다 높았다. 그리고 동료배려에서 과제($\beta=.30$)가 자아($\beta=-.04$)보다, 팀 정신에서 과제($\beta=.38$)가 자아($\beta=-0.18$)보다,

결과인정에서 과제($\beta=.37$)가 자아($\beta=-.0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판정존중에서는 자아($\beta=.18$)가 과제(.03)보다, 승부집착에서도 자아($\beta=.25$)가 과제($\beta=-.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 성취목표성향은 운동몰입, 최선, 상대존중, 동료배려, 팀 정신 그리고 결과인정에 대한 스포츠퍼슨십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독립변이며, 반면에 자아는 판정존중, 승부집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표 11>. 기본심리적특구와 스포츠퍼슨십에 대한 성취목표동기 유형의 설명력

변인	종속 변인	독립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R2	F
			B	표준오차	β				
기본심리적특구	관계성	(상수)	3.006	0.219			13.748***		
		자아	-0.109	0.073	-0.103		-1.506	0.068	11.379***
	자율성	과제	0.332	0.073	0.310		4.520***		
		(상수)	2.048	0.175			11.728***		
	유능성	자아	0.067	0.058	0.075		1.159	0.169	31.508***
		과제	0.327	0.059	0.361		5.569***		
	운동몰입	(상수)	1.628	0.201			8.112***		
		자아	0.380	0.067	0.373		5.702***	0.155	28.464***
	최선	과제	0.034	0.067	0.033		0.508		
		(상수)	2.153	0.193			11.131***		
스포츠퍼슨십	최선	자아	0.116	0.064	0.118		1.802	0.154	28.276***
		과제	0.308	0.065	0.310		4.741***		
승부집착	최선	(상수)	2.600	0.194			13.367***		
		자아	-0.008	0.065	-0.009		-0.128	0.075	12.479***
승부집착	최선	과제	0.266	0.065	0.278		4.063***		

상대 존중	(상수)	2.492	0.210		11.863***		
	자아	0.065	0.070	0.065	0.933	0.050	8.114***
	과제	0.181	0.071	0.178	2.565**		
동료 배려	(상수)	2.631	0.190		13.870***		
	자아	-0.041	0.063	-0.044	-0.644	0.079	13.291***
	과제	0.285	0.064	0.305	4.470***		
팀 정신	(상수)	2.637	0.211		12.517***		
	자아	-0.195	0.070	-0.189	-2.789**	0.096	16.396***
	과제	0.402	0.071	0.384	5.672***		
결과 인정	(상수)	2.597	0.190		13.689***		
	자아	-0.089	0.063	-0.094	-1.407	0.110	19.077***
	과제	0.360	0.064	0.379	5.648***		
관정 존중	(상수)	2.182	0.220		9.902***		
	자아	0.197	0.073	0.187	2.685**	0.043	6.945***
	과제	0.033	0.074	0.031	0.445		
승부 집착	(상수)	2.225	0.248		8.974***		
	자아	0.297	0.082	0.251	3.607***	0.040	6.533***
	과제	-0.197	0.083	-0.164	-2.358*		

*p<.05, **p<.01, ***p<.001

3. 스포츠퍼슨십에 대한 기본심리적욕구의 설명력

기본심리적욕구(관계성·자율성·유능성)가 스포츠퍼슨십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기본심리적욕구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스포츠퍼슨십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2> 참조).

<표 12>. 스포츠퍼슨십에 대한 기본심리적특구의 설명력

변인	종속 변인	독립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R2	F
			B	표준오차	β			
운동 몰입		(상수)	1.122	0.197		5.687***	0.369	0.000**
		관계성	0.124	0.048	0.133	2.606***		
		자율성	0.362	0.066	0.329	5.439***		
최선		(상수)	1.560	0.204		7.649***	0.269	0.000**
		관계성	0.066	0.049	0.074	1.351		
		자율성	0.282	0.069	0.267	4.103***		
상대 존중		(상수)	1.456	0.219		6.646***	0.258	0.000
		관계성	0.065	0.053	0.068	1.229		
		자율성	0.153	0.074	0.136	2.069**		
스포츠 동료 배려		(상수)	1.553	0.203		7.637***	0.240	0.000**
		관계성	0.257	0.049	0.295	5.254***		
		자율성	0.151	0.069	0.146	2.203**		
퍼슨십	팀정신	(상수)	1.224	0.226		5.420***	0.255	0.000
		관계성	0.333	0.054	0.340	6.121***		
		자율성	0.129	0.076	0.112	1.696		
결과 인정		(상수)	1.805	0.211		8.543***	0.207	0.000
		관계성	0.278	0.051	0.313	5.455***		
		자율성	0.053	0.071	0.050	0.744		
관정 존중		(상수)	1.809	0.251		7.204***	0.108	0.000
		관계성	-0.093	0.061	-0.093	-1.534		
		자율성	0.281	0.085	0.239	3.324***		
승부 집착		(상수)	1.760	0.294		5.993***	0.034	0.000
		관계성	0.049	0.071	0.044	0.688		
		자율성	-0.038	0.099	-0.029	-0.381		
		유능성	0.213	0.081	0.184	2.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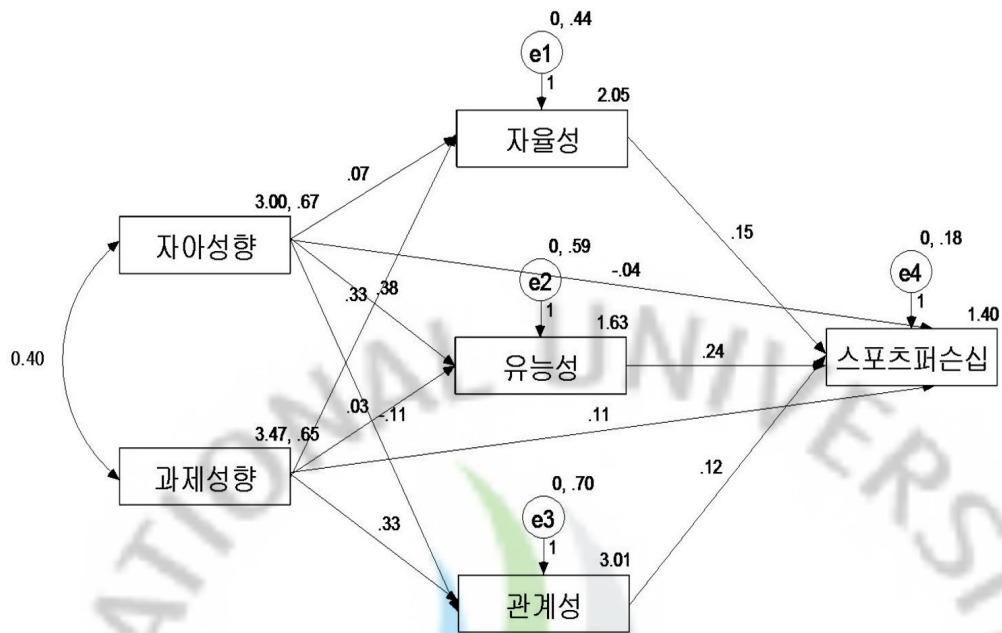
*p<.05, **p<.01, ***p<.001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본심리적욕구는 스포츠퍼슨십 하위변인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기본심리적욕구가 스포츠퍼슨십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운동몰입 36.9%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어 최선, 26.9%, 상대존중, 25.8%, 팀 정신, 25.5%, 동료배려, 24%, 결과인정, 20.7%, 관정존중, 10.8%, 그리고 승부집착, 3.4% 순으로 설명력을 보였다. 각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운동몰입에서 관계성($\beta=.13$), 자율성($\beta=.32$) 그리고 유능성($\beta=.27$)이었으며, 최선에서는 관계성($\beta=.07$), 자율성($\beta=.26$), 유능성($\beta=.27$)로 나타났다. 상대존중에서는 관계성($\beta=.06$), 자율성($\beta=.13$), 유능성($\beta=.38$)이었고, 동료배려에서 관계성($\beta=.29$), 자율성($\beta=.14$), 유능성($\beta=.17$)이었으며, 팀 정신에서는 관계성($\beta=.34$), 자율성($\beta=.11$), 유능성($\beta=.17$)이었다. 또한, 결과인정에서 관계성($\beta=.31$), 자율성($\beta=.05$), 유능성($\beta=.20$)이었고 관정존중에서 관계성($\beta=-.09$), 자율성($\beta=.23$), 유능성($\beta=.16$)이었으며, 승부집착에서는 관계성($\beta=.04$), 자율성($\beta=-.02$), 유능성($\beta=.16$)으로 나타났다.

4. 성취목표성향,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 간에 경로모형

운동선수들의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과 관련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심리적 욕구 및 스포츠퍼슨십에 영향을 미치는 성취목표성향을 구분하고 각 특성에 대해 측정하였다. 예측변수인 과제와 자아,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그리고 스포츠퍼슨십 간의 상관계수 행렬을 구하였다.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고,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 값을 추정하였다.



<그림 4>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에 대한 경로모형

연구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자아(ego) → 자율성 (autonomy)의 경로계수는 .07, 자아 → 유능성(com)의 경로계수는 .38로 유의한 값을 보였으며, 자아 → 관계성(relatedness)의 경로계수는 -.11로 나타났으며, 자아 → 스포츠퍼슨십(ship)의 경로계수는 -.04로 보여지만,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과제(task) → 자율성의 경로계수는 .65, 과제 → 관계성의 경로계수는 .33으로 유의한 값을 보였지만 과제 → 유능성의 경로계수는 .03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과제 → 스포츠퍼슨십의 경로계수는 .11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에 대한 연구모형의 효과계수는 <표 13>와 같다.

<표 13> 연구모형의 효과계수

		자아	과제	관련성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	직접효과	.310	-.103			
	간접효과					
	전체효과	.310	-.103	.193	.386	.206
유능성	직접효과	.033	.373			
	간접효과					
	전체효과	.361	.075			
자율성	직접효과	.361	.075			
	간접효과					
	전체효과	.033	.373			
스포츠퍼슨십	직접효과	.177	-.065	.193	.386	.206
	간접효과	.147	.140			
	전체효과	.324	.074			

먼저, 관련성 → 자아는 .31의 전체효과를 보였으며, 관련성 → 과제는 -.10의 전체효과를 보였다. 유능성 → 자아는 .36의 전체효과를 유능성 → 과제는 .07의 전체효과를 보였다. 자율성 → 자아는 .03의 전체효과를 자율성 → 과제는 .37의 전체효과를 나타내었다. 끝으로 스포츠퍼슨십 → 자아는 .32의 전체효과와 스포츠퍼슨십 → 과제는 .07의 전체효과를 보였다. 한편 전체효과와 직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스포츠 퍼슨십($p > .206$)을 제외한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p < .000$). 간접효과에서는 스포츠퍼슨십 → 자아에서 .14의 간접효과와 스포츠퍼슨십 → 과제에서 .14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접효과에서는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0$).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성향이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청소년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성취목표성향에 따라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했다. 성취목표성향 중 과제성향은 대체로 기본심리적욕구인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스포츠퍼슨십의 각 하위요인에서도 과제성향이 승부집착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의 비교·논의를 통해 본 연구를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성취목표성향과 기본심리적욕구와의 관련성을 검증해왔다(Butler, 1987; Ntoumanis, 2001; Standage, Duda & Ntoumanis, 2003). 이들 연구에 의하면, 과제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기본심리적욕구가 높아지는데, 특히 자율성과 유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자아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심리적욕구를 만족시키는 개인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과제성향이 관계성과 자율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유능성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것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유능성은 주어진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다(Harter, 1978; White, 1959). Vallerand(2001)에 의하면 유능성은 외적동기의 측면에서 향상될 수 있는 욕구이므로 확인규제를 비롯한 내적규제를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욕구이다.

결과적으로 자아성향을 과제성향보다 유능성에 더 큰 영향력을 보인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아성향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이 우월하다고 인식하는 성취목표성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다른 선수들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유능성과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으리라 판단된다. 최근 목표성향이 지각된 유능감에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에서도 과제성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아성향이 지각된 유능감을 통해 내적동기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박중길, 200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본심리적욕구 중 유능감은 과제성향 보다는 자아성향에 더 영향을 받는 요인일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스포츠퍼슨십과 관련된 일부 연구는 성취목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과제성향과 자기성향은 성취 맥락 내에서 스포츠퍼슨십에 영향을 미친다(Nicholls, 1989). 일반적으로 과제성향의 선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자기-참조적 기준을 활용하고, 반면에 자아성향의 선수는 타자-참조적 기준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Miller et al., 2005). 이러한 맥락에서 과제성향이 자아성향보다 운동몰입, 최선, 상대존중, 동료배려, 팀 정신, 결과인정, 판정존중 등의 스포츠퍼슨십의 하위요인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과제성향 선수들이 Miller 등(2005)이 주장한 것처럼, 자기-참조적 기준을 활용하기 때문에, 운동 상황에서 운동에 더욱 몰입하고, 자신의 능력발달, 팀과 성적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팀 정신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동료를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기상황에서도 심판에 대한 판정을 더욱 존중한다는 결과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Nicholls(1989)와 Duda 등(19991)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과제성향이 높을수록,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실패 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실력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할 뿐 만 아니라, 팀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료들을 배려하면서 자신보다는 팀을 우선 시 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박중길(2009)의 연구에서도 성취목표와 관련하여 과제성향은 운동몰입, 최선, 상대존중, 동료배려, 팀 정신, 결과 인정, 판정존중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반해 자아성향 선수들은 타자-참조적 기준을 활용하기 때문에, 과제성향과는 다소 다르게 스포츠퍼슨십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아성향 선수들이 승부집착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즉, 자아성향 선수들은 과제성향 선수들보다 승부집착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팀 동료 및 상대방 선수나 팀과의 경쟁 및 비교를 통해(타자-참조적 기준 활용) 자신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자아성향이 높은 선수들은 승리나 타인보다 비교우위에 초점을 두면서 정의나 공정성을 무시하거나 상대의 안녕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개념화되어 있다(정봉해, 2005).

본 연구에서 보여준 스포츠퍼슨십의 하위변인인 승부집착에서 자아성향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은 이러한 개념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박중길, 2009). 박중길(2009)의 연구에서도 과제성향이 낮고 자기성향이 높을 때, 선수들이 승부에 집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외의 경우, 자기성향이 일부 스포츠퍼슨십의 하위요인인 게임 존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Dunn & Causgrove Dunn, 1999; Lemyre et al., 2002).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성취목표성향에 입각해서 풀이 되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은 주요타자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결과와 한국적인 운동부들의 특수적 상황

에서 형성되어 성취목표성향에 따른 영향력이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에서 자아성향과 스포츠퍼센십 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Gano-Overway et al., 2005), 목표성향이 축구선수들의 친사회적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Sage et al., 2006). 성장훈(2003)의 주장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포츠퍼센십 척도가 우리 문화를 반영하는 내용을 비교적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일부 하위요인에서 단일적 개념이 아닌 다양한 차원들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개념의 존재를 확인하였듯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성취목표성향에 따른 스포츠퍼센십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은 집단 의식과 서열 의식(최상진, 1997; 한규석, 1997), 의리와 명분 중시(최상진, 유승엽, 1992), 인간관계의 본질적 특성인 정(情)을 중시(최상진, 최수향, 1990; 최상진, 유승엽, 1996) 하는 경향은 의식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운동상황 속에서 그 역량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이다.

V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 현재 선수활동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성취목표성향이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구기종목 운동선수 310명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과 기본심리적욕구 및 스포츠퍼슨십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과제성향은 기본심리적욕구의 관계성과 자율성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과제성향은 스포츠퍼슨십의 대부분의 하위요인들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 자아성향은 기본심리적욕구의 유능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로 밝혀졌으며
4. 자아성향은 스포츠퍼슨십 하위요인 중 관정존중과 승부집착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목표성향에 따라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기본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슨십

향상을 위해서는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스포츠상황에서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기본 심리적욕구와 스포츠퍼센십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규동(2009). 골프 참가자의 심리적 욕구, 참여동기와 참여지속의도의 관계 모형검증. 미간행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대학원.
- 김덕진, 양명환(2006). 체육수업 상황에서 기본적 욕구, 동기 유형 및 심리적 웰빙간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 2006, 제17권, 제 1호, 25-45.
- 김병준(2001). 목표성향으로 예측한 스포츠 재미와 스트레스.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2(1), 125-140.
- 문운제(2005).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동기 분위기 지각이 동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 2005, 제 16권, 제 2호, 33-48.
- 류민정, 김인형(2007). 직업무용수의 목표성향, 지각된 신체적 유능감과 무용 유능감 간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9, 363-373.
- 류민정, 표내숙(2007). 스포츠 상황에서의 성취목표성향과 신체적 유능감 정보의 관계. 체육과학연구, 18(2), 104-116.
- 박중길(2009). 대학 운동선수의 성취목표와 동기분위기지각이 스포츠퍼슨십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 20(2), 81-97.
- 박중길, 김기형(2008). 운동선수의 기본 심리적 욕구 검사지 개발과 타당화.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08, 제 19권, 제4호, 53-72.
- 박영덕(2006). 중·고교 배드민턴 선수의 목표성향이 스포츠맨십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교육대학원.
- 박철민(2009). 영어학습자의 자기결정성과 자기조절학습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교육대학원.

- 배수진(2005). 테니스 남자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경쟁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교육대학원.
- 성창훈(1994). 스포츠 목표설정 연구의 경향과 방법론적 문제 및 미래 과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94, 제 5권, 제 2호, 97-68.
- 성창훈(2003). 청소년 운동참가자들의 스포츠맨십 측정도구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2), 129-143.
- 성창훈, 김원배(2000). 스포츠맨십 행동의 개념화 시도(I): Vallerand의 다차원 스포츠맨십 구조 타당도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1(1), 141-154.
- 송인섭, 박성운(2000). 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4(2), 30-54.
- 안정덕, 표내숙, 박철용(2001). 지방화 시대와 스포츠 : 스포츠심리학 ; 태권도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정신건강 상태에 관한 연구. 제82회 전국체전기념 제39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Vol.0, No.0, Startpage 170, Endpage 181, Totalpage 12.
- 안주미(2007). 에어로빅체조선수들의 성취목표지향과 운동포기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8(1), 75-90.
- 양명환.(2004).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한 레저스포츠 동기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9(2), 107-132.
- 유진(1996). 운동선수들의 심리적 기술 검사지 개발. 한국체육학회지, 35(3), pp. 107-124.
- 유진(1997). 스포츠 성취목표 지향성과 동기분위기가 내적동기, 자긍심, 운동수행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8(15), pp. 68-86.
- 이명희(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2권 제4호, pp. 157-174.
- 이학준(2003). 스포츠의 사회윤리. 도서출판 북스힐. 서울.
- 임상용, 오진식(2009). 방과후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이 신체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학회지. 제 36호, pp. 479-492.
- 정국현(2003). 태권도 선수의 스포츠 성취목표지향성과 신체적 자기 효능감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4(1), 271-281.
- 정봉해(2005). 청소년 스포츠 참가자의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맨십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 16(3), 173-186.
- 정봉해(2006). 성취목표성향에 따른 여고생의 체육수업재미와 내적 동기. 한국체육학회지 인문·사회과학편, 45(5), 149-259.
- 정용각(2008). 여가운동 참가자의 스포츠참여행동 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19권 제2호 통권49호, pp.195-214.
- 정은이(2007). 댄스스포츠 참가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참여동기와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의권, 김용주, 최병호(2004). 대학생 운동선수의 스포츠지향성과 스포츠맨십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22호, pp. 45-56.
- 정청희, 김병준(1999). sport 심리학의 이해, 도서출판 금광. 서울.
- 정필운, 임식(2003).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의 성취목표지향성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체육학회지, 13(1), 69-78.
- 천경민(2009). 청소년의 운동에 대한 기본적 심리욕구, 행동규제와 운동변화 단계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 최병연(2002).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이론의 교육적 적용. 한국스포츠리서치, 16, 165-184.
- 최상진(1997).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pp695-766), 학문사: 서울.
- 최상진, 유승엽(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137-157.
- 최상진, 유승엽(1996). 심정심리학의 개념적 틀 탐색. 한국심리학회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7-388.
- 최상진, 최수향(1990). 정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회초록, 1-9.
- 한규석(1997).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비교 연구: 현황 및 세계화속의 과제.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편.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도서출판: 성원사.
- 최선철(1996). 스포츠의 윤리적 행위 준칙으로서 스포츠맨십이 갖는 의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 최순영, 김수정(1995). 인간의 사회적·성격적 발달. 학지사. 서울.
- 한태준(2008). 레슬링 선수의 성취목표지향성, 자기관리 및 스포츠 자신감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Vol.19 No.4, 35-52.
- 한태준, 배영훈, 박현숙(2004). 일반골퍼의 성취목표성향과 참여동기가 스포츠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5(6), 1335-1344.
- 허정훈(2005). 스포츠성취목표성향. 스포츠심리학핸드북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편. 도서출판 무지개사. 서울.
- 황유미(2007). 청소년 배드민턴 선수들의 스포츠맨십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

- Ames, C. (1984). Achievement attributions and self instruction in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goal structur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478-484.
- Atkinson, J. W. (1980). Motivational effects in so-called tests of ability and educational achievement. In L.J. Fyans, Jr.(Ed.). *Achievement motivation*. New York : Plenum.
- Atkinson, J. W. (1983). *Personality, motivation and action*. New York : Pareger.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iddle, Hanrahan, & Sellars, (2001). *Attributions: past, present, and Future*. Siger, R. N., Hauseblas, H. A., janelle, C. M., (Eds.), *Handbook of Sport Psychology*. 2nd ed. John Wiley & Sone.
- Blair, S. (1985). Professionalization of toward play in children and adult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56, 82~83.
- Bredemeier, B., & Shields, D.(1993). Moral psychology in the context of sport. In R. N. Singer, M. Murphey, & L. K. Tennant(Eds.). *Handbook of research on sport psychology*. Macmillan.
- Bredemeier, B., Weiss, M., Shields, D., & Shewchuck, R.(1986). Promoting moral growth in a summer sport camp: The implementation of theoretically grounded instructional strategies. *Journal of Moral Education*. 15, 212-220.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Butler, R. (1987). Task-involving and ego-involving properties of evaluation: Effects of different feedback conditions on motivational, perceptions, interes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474-482.
- Cannelly, T. A. (1996). The relationship of goal orientation to motivation among woman golf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pringfield College, Springfield, MA.
- Capenter, P. J., & Yates, B. (1997).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s and the perceived purpose of soccer for semiprofessional and amateur player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9, 302-311.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NY: Plenum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u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Deci, E. L., & Ryan, R. M. (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eCharms, R. 1968. *Personal Causation: The Internal Affective Determinants of Behavior*. Academic Press, New York.
- Duda, J. L.(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task and ego orientation and the perceived purpose of sport among male and female high school athlete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1, 318-335.

- Duda, J. L.(1989). goal perspective and behavior in sport and exercise settings. In C. Ames & M. Maehr(Eds.),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Vol.6, pp.81-115). Greenwich, CT: JAI Press.
- Duda, J. L.(1992). Motivation in sport setting: A goal perspective approach. In G. C. Roderts(Ed.),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pp.57-91).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Duda, J. L.(1993). A goal perspective theory of meaning and motivation in sport. In the 8th World congress of sport psychology proceeding (pp.65-81), Lisbon, Porutugal.
- Duda, J. L.(1993). Goals: A social cognitive approach to the study of motivation in sport. In R.N. Singer, M. Murphy, & L. K. Tennant (Eds.), Handbook of research in sport psychology(pp. 421-436). New York: Macmillan.
- Duda, J. L. (2001). Goal perspectiv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health related outcomes in the physical domain. In F. Cury, P. Sarrazin, & F. P. Famose (Eds.), Advances in motivation theories in the sport domai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o france.
- Duda, J. L., Olson, L. K., & Templin, T. J.,(1991). The relationahip of task and ego orientation to sportsmanship attitude and the perceived legitimacy of injurious acts. Resea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62(1), 79-87.
- Duda, J. L., Chi, L., Newton, M. L., Walling, M. D., & Catley, D. (1995). Task and ego orient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in s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6. 40-63.

- Duda, J. L., & White, S. A. (1992). Goal orientations and beliefs about the causes of sport success among elite skiers. *The Sport Psychologist*, 6, 334-343.
- Dunn, J. G. H., & Causgrove Dunn, J. (1999). Goal orientations, perceptions of aggression, and sportpersonship in elite youth male ice hockey players. *The Sport Psychologist*, 13, 183-200.
- Erickson, E.(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W. W. Norton.
- Freud, S.(1933).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New York: W. W Norton.
- Frodi, A., Bridges, L., & Grolnick, W. (1985). Correlates of mastery-related behavior: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infants in their second year. *Child Development*, 56, 1291-1298.
- Gano-Overway, L. A., Guivernau, M., Magyar, T. M., Waldron, J. J., & Ewing, M. E. (2005). Achievement goal perspectives, perceptions of motivational climate, and sportpersonship: Individual and team effect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6, 215-232.
- Giebink, M. P., & McKenzie, T. C.(1985). Teaching sportsmanship in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An analysis of intervention and generalization efforts. *Journal of Teaching Physical Education*, 4, 167-177.
- Harter, S. (1978). Effectance motivation reconsidered: Toward a developmental mode. *Human Development*, 21, 34-64.
- Harter, S. (1978). Effetance motivation reconsidered: Toward a devel-opmental model. *human Development*, I, 661-669.

- Haskins, J. B. (1960). "Validation of the Abstraction Index as a Tool for Content - Effects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44, 1 02-106.
- Hayford, L. G. (1987). An assessment of the ethical performance of male high school players toward dilemmas in competitive soccer situ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 Hein, V., & Hagger, M. (2007). Global self-esteem, goal achievement orientations, and self-determined behavioral regulations in a physical education setting. *Journal of Sports Sciences*, 25(2), 149-159.
- Hom, H. L, Duda, J. L., & Miller, A. (1993), Correlates of goal orientations among young athletes. *Pediatric Exercise Science*, 5, 168-176.
- Ingledeu, D. K., Markland, D., & Sheppard, K. E. (2004). Personality and self-determination of exercise behaviou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1921-1932.
- Kim, B. J., & Gill, D. L. (1997). A Cross-Cultural Extension of Goal Perspective Theory to Korean Youth Sport.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9, 142-155.
- Kohlberg, L.(1969).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thought and action*, NY : Holt and Rinehart.
- Kroll, W. (1976). Psychological scaling of the AIW A code-of-ethics players. *Research quarterly*, 47, 126-133.

- Lee, M. J., Whitehead, J., Ntoumanis, N., & Hatzigeorgiadis, A. (2001). Development of the Sport Attitude Questionnaire. In A. Papaioannou, M. Goudas, & Y. Theodorakis (Eds.), *In the dawn of the new millennium, Vol 2: Proceedings of the 10th World Congress of Sport Psychology* (pp.191 - .192). Thessaloniki, Greece: Christodouli Publications.
- Lee, M. J., Whitehead, J., Ntoumanis, N., & Hatzigeorgiadis, A. (2008). Relationships among values, achievement orientations, and attitudes in youth sport.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0, 588-610.
- Lemyre, P., Roberts, G. C., & Ommudsen, Y.(2002).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perceived ability, and sportspersonship in youth soccer.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 120-136.
- Levesque, P.-J., Liu, F., Simmons, P. J. et al. (2004) Characterization of hematopoietic progenitor mobilization in protease-deficient mice. *Blood* 104, 65 - 71.
- McClelland, D. (1985). *Human Motivation*. Glenview, IL : Scott Joresman.
- Miller, B. W., Roberts, G. C., & Ommudsen, Y. (2005). Effects of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on moral functioning, team moral atmosphere perceptions, and the legitimacy of intentionally injuries acts among competitive youth football player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6, 461-477.
- Murray, H. et al.(1938) *Expolraltions in personality : 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Nicholls, J. G.(1984). Achievement motivation : Concepts of ability, subjective experience, task choice, and performance. *Psychological Review*, 91, 328-346.
- Nicholls, J. G.(1989). *The competitive ethos and democratic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icholls, J. G.(1992). The general and the specific in the development and expression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G. C. Roberts(Ed.),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pp.31-56).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Nicholls, J. G., & Miller, A. T. (1984). Development and it's discontents: the differentiation of the concept of ability. In J. Nicholls & M.L. Maehr(Eds.),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pp. 185-218). London: JAI press.
- Ntoumanis, N. (2001). A self-determination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motivation in physical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225- 242.
- Ntoumanis, N. Biddle,S.J.H., & Haddock, G. (1999). The mediating role of cop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affect in sport. *Anxiety, Stress and Coping*, 12, 299-327.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Power, F. C. (1994). Moral development.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Academic Press, Vol. 3. 203-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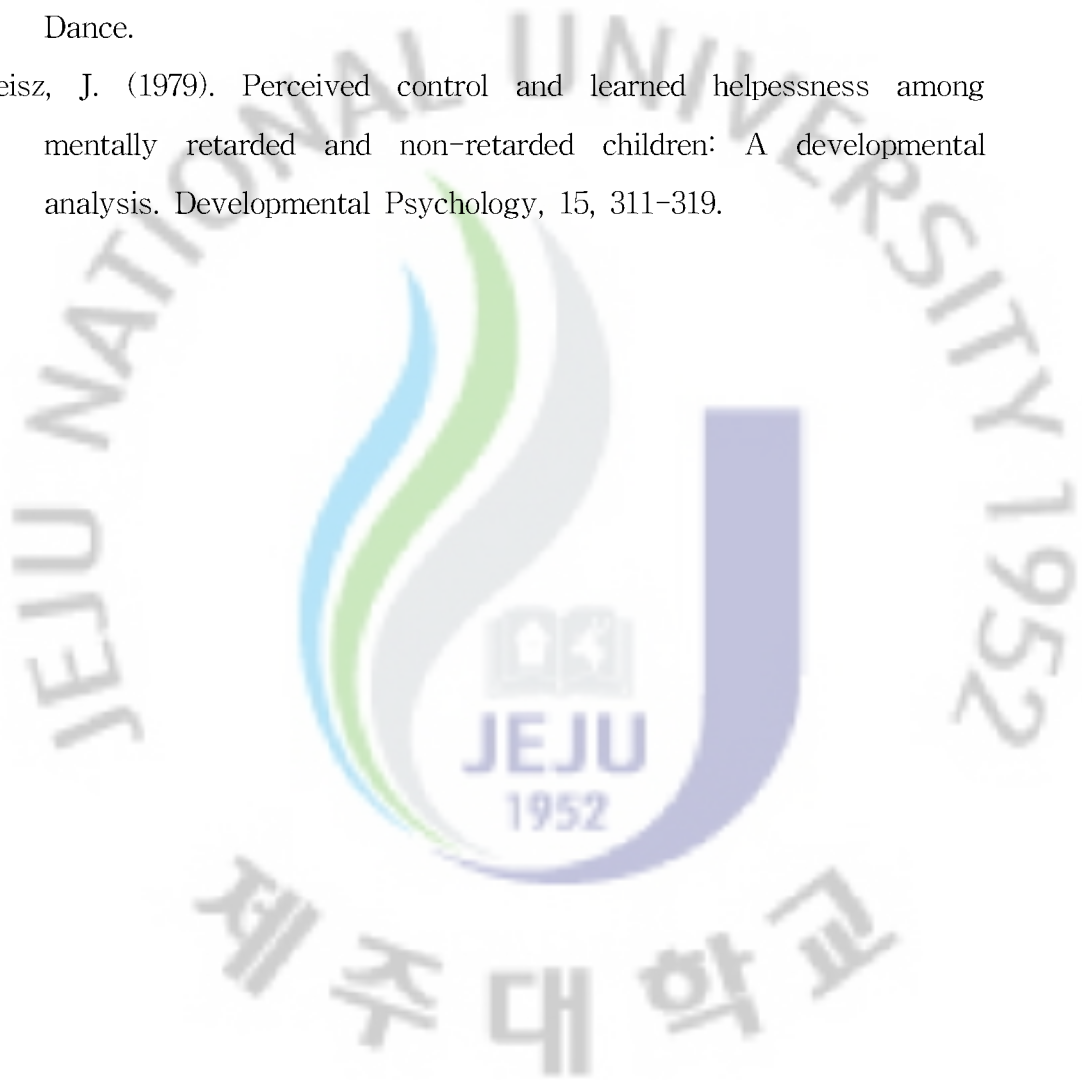
- Rehm, L. P. & Rokke, P.(1988). Mental links to excellence. *The Sport Psychologist*, 2, 105-130.
- Reinboth, M., & Duda J. L. (2006).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need satisfaction and indices of well-being in team sports: A longitudinal perspectiv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7, 269 - .286.
- Roberts, G. C.(1992).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Conceptual constraints and conceptual convergence. In G.C. Roberts(Ed).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pp.3-30).Champaign, IL: Human kinetics.
- Roberts, G. C.(2001).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motivation in physical activity: The influence of achievement goals on motivational process. In *Advances in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G.C. Roberts(Ed); Champaign, II: Human Kinetica Publishers; 1-50.
- Sage, L., Kavussanu, M., & Duda, J. (2006). Goal orientation and moral identity as predictors of prosocial and antisocial functioning in male association football players. *Journal of Sports Sciences*, 24(5), 455-466.
- Standage, M., Duda, J. L., & Ntoumanis, N. (2003). A model of contextual motivation in physical education: Using constructs from self-determination and achievement goal theories to predict physical activity inten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 97-110.

- Stipek, D. J. (1984). Developmental aspects of motivation in children. In R. Ames (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Vol. 1. Student motivation* (pp. 145-174). New York: Academic Press.
- Vallerand, R. J. (2001). A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In G. C. Roberts(Ed.), *Advances in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pp. 263-319).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Vallerand, R. J., Briere, N. M., Blachaard, C., & Pelletier, L. G. (199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Sportpersonship Orientation Scale. *Journal of Sports & Exercise Psychology*, 19, 197-206.
- Vallerand, R. J., Deshaies, P., Cuerrier, J. P., Briere, N. M., Blachaard, C., & Pelletier, L. G. (1996). Toward a multidimensional sportpersonship. *Journal of Applied Sports Psychology*, 8,89-101.
- Vallerand, R. J. & Losier, G. F, (1999). An integrative analysis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sport.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999.
- White, R. W.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333.
- White, S. A., & Duda, J. L. (1994). The relationship of gender, level of sport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motivation to task and ego orien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5, 4-18.
- Williams, L., & Gill, D. L. (1995). The role of perceived competence in the motivation of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7, 363-378.

Weiner, B. (1980). Human moti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Weiss, M. & Bredemeier, B. (1986). Moral development. In V. Seefeldt (Ed.) Physical activity and well-being (pp. 373-390). Reston, VA: Americ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Weisz, J. (1979). Perceived control and learned helplessness among mentally retarded and non-retarded children: A develop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11-319.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portspersonship on achievement goals for
middle and high school athletes**

Kim Myoung-Ho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im Sang-Yonng

The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for sport and exercise setting in athletes were influence which significant others by individual orientation and sports environment. A relationship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portspersonship on achievement goal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athletes were examined. 310 male athletes completed the 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 Basic Psychological Questionnaire and 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Sportspersonship Orientations Scale in Youth Sport.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EFA, internal consistency,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results, generally

Task-orientation is the best predictor on autonomy, relatedness and sportpersonship subfactor in athletes students. In contrast, Ego-orientation only significant competence factor for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respect of judgement and competitive spirit for sportperson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importance of the view of achievement goal motivation on enhancing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portpersonship.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sport and exercise setting will be insight by the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for athletes students. Also athletes for basic psychological needs will be able understand.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0.

< 부록 : 설문지 >

운동선수에 관한 연구

운동 선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의 목적은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기본심리적욕구 및 스포츠 퍼슨십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응답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연구 목적상 자료처리 용도로만 사용되며, 설문내용에는 옳고·그른 답이 없으니, 사실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답 하나하나가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승리를 기원하며, 본 조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0년 6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과 김명훈

지도교수 임상용

I. 다음은 본 연구의 기초자료입니다. 중요한 사항이오니 해당란에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학년은?	중학교, 고등학교 / ____학년
2. 귀하의 성별은?	<input type="checkbox"/> 남 / <input type="checkbox"/> 여
3. 귀하의 운동종목은?	① 축구 ② 야구 ③ 농구 ④ 핸드볼 ④ 배구 ⑤ 기타(_____)
4. 경기에서 어디에 속하는 편이에요?	① 주전선수 ② 비주전선수

II. 다음은 귀하가 운동수행을 할 때 과제수행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경쟁심을 목표로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하는 정도에 "V" 혹은 "O"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시문 :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운동을 잘 한다고 생각하나요?

■ 성취목표성향 검사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 혼자만 어떤 운동기술을 할 수 있을 때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많이 연습할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친구보다 더 잘 할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가 나보다 못할 때 내가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 재미있는 것을 배울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6. 친구들이 실수해도 나는 안했을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노력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8. 열심히 연습할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특점을 많이 했을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많이 연습할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11. 내가 다른 친구들 보다 제일 잘 할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2. 배운 운동 기술을 제대로 했을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3. 최선을 다 할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 문항들은 기본심리적욕구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하는 정도에 "V" 혹은 "O"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시문 :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나요?

■ 기본심리적욕구 검사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팀 동료와 함께 있을 때 매우 편안한 기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팀 동료들과 매우 사이좋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팀 동료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팀 동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은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6. 우리 팀 연습방식은 나와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운동을 하는 방식은 절대로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연습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선택할 기회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세운 목표를 빠르게 도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매우 능률적으로 연습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11. 나는 우리팀 동료들에 비해 실력이 꽤 뛰어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시합에서 내 기술을 잘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 문항들은 운동을 할 때 자신의 스포츠퍼슨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하는 정도에 "V"혹은 "O"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시문 :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마음 가짐으로 운동을 하나요?

■ 스포츠퍼슨십 검사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이기기 위해 보이지 않게 반칙한다.(R)	①	②	③	④	⑤
4. 동료나 선후배의 인격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6. 상대편 선수의 부상을 이용한다.(R)	①	②	③	④	⑤
7. 실패하여도 운동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심판의 판정에 무조건 복종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운동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손해를 감수하고 동료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11. 팀을 위해 내 몸을 희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시합 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연습이나 시합 중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비난한다.(R)	①	②	③	④	⑤
14. 게임을 할 때 정중히 인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실력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 스포츠퍼슨십 검사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심판 판정에 항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 종목에 자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19. 팀 동료가 못해도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0. 모든 시험 결과에 승복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21. 내 자신보다 팀을 중요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게임에 졌더라도 인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심판의 잘못된 판정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판정 오류 시에도 심판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동료나 선배를 깎듯이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26. 팀웍을 위해 동료들과 협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내 자신의 결과나 잘못을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항상 바른 예의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29. 잘못할 경우 먼저 사과한다.	①	②	③	④	⑤

【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